

다음세대를 위한 언택트 시대의 가정신앙교육

: 한소망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이세희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2년 5월

Copyright©2022 Sehee Lee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Family Faith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in the untact era
: A Case Study of Hansomang Church, Paju, Korea

Sehee Lee

Hansomang Church, Paju

Home is the first place everyone hugs in their lives. All humans are born and raised in families, and when they become adults, they create another new family and continue history. The family is the first place of education where human formation takes place, and the family is also the place of faith formation. The family is the smallest religious community built by God and is a small church.

Christian families are obligated to educate their faith and love for God. However, due to industrialization, it was entrusted to the church along with various functions of the family. Recently, due to COVID-19, the period of untact has arrived, and many functions have been demanded by families again. It is time for churches and families to work together to lay the foundation for family faith education.

To this end, first, in the Old Testament, New Drug, and Reformation Era, family faith education was examined. It also looked at changes in the family during the untact period and studied pastoral methodologies on "how to share faith in the family?" and "what

changes should be made in front of God," which are values and goals that should not be missed.

In this study, the case of the next generation department (childhood department, child department) of Hansomang Church was selected as a pastoral methodology for family belief education. The focus was on what programs each department has to educate parents and help educate family beliefs.

A survey was conducted on parents with children in the next generation, and families' environment, awareness of worship, and worship were able to be examined.

I hope that this paper will contribute as one of the ways to help churches and pastors preparing for faith education in each family of the church.

국문초록

다음세대를 위한 언택트 시대의 가정신앙교육
한소망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사회

한소망교회, 경기도 파주시

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 안기는 곳이다.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며, 성인이 되면 또 다른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역사를 이어 나가게 된다. 가정은 인간 형성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교육의 장이며, 가정은 신앙형성의 장이기도 하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가장 작은 단위의 신앙공동체이며, 작은 교회이다.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교육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산업화로 인하여 가정의 다양한 기능과 함께 이것을 교회에게 일임하였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언택트의 시기가 도래하며 많은 기능들이 다시금 가정에게 요구되었다.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서 가정신앙교육의 기틀을 세워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고 종교개혁시대에 가정신앙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언택트 시기에 가정의 변화를 살펴보고,

놓치지 않아야 할 가치와 목표인 “어떻게 가정 안에 신앙을 공유할 것인가?” ,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목회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신앙교육의 목회 방법론으로 한소망교회의 다음세대 부서(유아부, 아동부)의 사례를 선택하였다. 각 부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모를 교육하고 가정신앙교육을 돕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다음세대에 자녀를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가정들의 환경과 예배 인식 그리고 가정예배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본 논문이 교회의 각 가정의 신앙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기여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표 목차	ix
그림 목차	x
감사의 글	xi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방법과 범위 : 방향성.....	3
II. 가정신앙교육의 성경적 역사적 이해	4
구약성경에 나타난 가정신앙교육.....	4
신약성경에 나타난 가정신앙교육	9
종교개혁 시대의 가정신앙교육	12
III. 언택트 시대의 가정신앙교육의 기능	16
언택트 시대의 부모와 자녀	16
공유성을 기르는 가정신앙교육	18
변형성을 기르는 가정신앙교육	21
IV. 다음세대를 통한 가정신앙교육 실재(한소망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24
해피 영유아유치(1-7세).....	24
드림 어린이(8-13세)	33
V. 한소망교회의 드림어린이 가정신앙교육 분석과 평가	57
VI. 결론	72
요약 및 평가	72

결론과 제언	74
참고문헌	76
부록	78

표 목차

<표1> 키즈쿡 시즌 6의 주차별 주제 및 요리	26
<표2> 키즈쿡의 세부 타임테이블.....	28
<표3> ABC가족성경캠프 진행표	34
<표4> 공감스쿨 진행표	41
<표5> 전통놀이 활동 목록.....	48
<표6> 설문 개요	58

그림 목차

<그림1> 키즈쿡 시즌 6의 1주차 3주차의 PPT 사진	30
<그림2> 말씀놀이터를 위해 각 가정으로 나간 안내일정과 유튜브 표지	31
<그림3> 교사참여 연극	32
<그림4> ABC 가족성경캠프에 준비된 텐트를 꾸밀 준비물과 예시 텐트	35
<그림5> ABC가족성경캠프 텐트 설치 예시	36
<그림6> 부모양육태도검사지와 프로파일 결과지	37
<그림7> 가족운동회	38
<그림8> 부모학교 로고	40
<그림9> 공감스쿨에서 진행한 다양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전래놀이	44
<그림10> 온가족 집콕놀이를 줌(ZOOM)으로 진행하는 담당교사	46
<그림11> 온라인 집콕놀이 배너	47
<그림12> 다양한 전통놀이와 준비물	48
<그림13> 드림어린이 가정예배 서약서	51
<그림14> 드림어린이 가정예배 키트	52
<그림15>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공과활동 중 가정예배 부분	53
<그림16> 유튜브를 통해 제공된 드림어린이 가정예배 교육영상	54
<그림17> 유튜브에 제공하고 있는 드림어린이 찬양곡	55

감사의 글

먼저 지금까지 논문을 쓰도록 모든 상황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가정에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몇 번이나 이 논문을 다음으로 미룰까 고민했었는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해주시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며 제자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수님의 모습은 저의 목회의 인생의 큰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에 대한 폭넓은 통찰력을 보여주신 조병호 박사님에게도 깊은 감사 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모든 목회의 모범을 보여주신 류영모 위임목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목사님의 배려로 공부를 시작했고 논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소망교회의 교역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목사님들이 있어 조금 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날마다 느끼게 해준 나의 사랑하는 아내, 김나은 사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쁜 하임이 라임이 두 딸에게 더 자주 놀아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큼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께 이 논문을 통해 존경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논문을 완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시 올려드리며 감사의 글을 마칩니다.

2022. 5.

이 세 희

제 I 장

서 론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가정은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에서 가정은 가장 소외된 신앙교육의 장이 되어버렸다. 서구 기독교 국가의 전통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대부분 교회를 통하여 신앙교육이 수행되어 왔다.

교회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적절히 강조하지 못해왔다. 그리고 가정의 신앙교육을 돕는 가정예배에 관심을 갖지 못해왔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는 가정보다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요구하였다. 마치 자녀의 학업을 학교와 학원에 내주어준 것처럼, 자녀를 위한 신앙훈련과 기독교적 가치관 교육을 교회에 떠맡겨왔다.

그러나 가정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신앙교육의 장이다. 가정은 한 인간이 태어나서 가정 처음 접하는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며 그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은 시간을 지니고 있는 장소이다. 가정은 우리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가정은 결혼을 통한 결합, 출생, 육아와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부모의 양육을 통해 교육적인 기능을 한다. 심리학자들의 통일된 견해들과 같이 어린이의 품성형성과 성장은 부모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어린이의 지능지수나 감성지수, 그리고 성품 등이 학교교육이 시작되기 전 가정을 통해 크게 영향 받는다. 따라서 가정은 어린이들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이자, 교육공동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최초의 교사인 것이다. 한국교회는 가정으로 하여금 교육공동체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정은 “집안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가정은 여기 저기 이 세상 어디엔가 있는 가장 작은 교회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가정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들이 되어야 하고, 작지만 자유로운 교회로서 모든 것을 갖춘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직업은 자녀들의 주중 삶을 위한 목회로 기능해야 하며, 주일이 다가오는 동안 가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손으로 교회에 올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가득한 것을 갖고 올 수 있어야 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세훈)은 2018년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국 초교 4학년~고교 2학년 571명을 대상으로 일과와 생활 방식을 측정한 ‘아동 행복생활시간’ 조사 결과 부모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13분으로 나왔다.¹ 이러한 결과에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가족시간이 코로나로 강제로 확보되었다.

뉴욕타임스(NYT)가 ‘코로나 이혼(covidivoces)’ 과 ‘코로나 베이비(coronababies)’ 라는 신조어로 코로나19가 불러온 가족의 위기이자 기회를 요약했다.² 같은 코로나의 위협 앞에서도 어떤 이들의 가정은 불화가 되고, 어떤 이들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의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한국 기독교인

¹ 차성용. “국내 아동,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하루 평균 ‘13분’ ”. 『한국NGO신문』.2018년4월 30일.

² 정재홍. “[view] 코로나가 '라이프스타일·의료·교육·국제관계' 다 바꾼다”. 『중앙일보』.2020년3월31일.

가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된다. 온라인으로 대체된 예배, 증가된 가족시간 등은 현명하게 이 시간을 보낼 경우, 영적으로 교육적으로 가정신앙교육과 가정예배의 토대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인 것이다. 이러한 시점이 한국교회가 가정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최적의 시간인 것이다.

연구의 방법과 연구 범위

본 논문을 통해 먼저 가정신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가정신앙교육이 무엇이고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가정신앙교육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본다. 쉐마의 말씀과 가치관을 통해서 가정의 여러 기능이 분리되기 전 가정 안에서 어떤 가정의 정의와 신앙교육이 일어났는지 구약시대를 알아보고,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정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떻게 가정교육을 해야 하는 가 살펴보았다. 종교개혁 시기, 가정을 작은 교회라 정의하고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았다. 이를 토대로 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며 가정예배를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한소망교회의 다음세대 부서를 통해서 가정신앙교육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미취학부서인 해피영유아유치의 키즈쿡과 말씀놀이터, 초등부서인 드림어린이의 ABC가족성경캠프, 감동스쿨, 온가족집콜놀이, 가정예배교육을 살펴 앞서 언급한 가정의 신앙교육과 실체를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세대 부모를 통한 설문을 통해 가정들의 환경과 예배 인식 그리고 가정예배에 대해 필요성을 분석하고 결론을 맺을 것이다.

제 II 장

가정신앙교육의 성경적 역사적 이해

구약성경에 나타난 가정신앙교육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조직체이자 공동체이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아담과 하와에게 준 일회성 말씀이 아닌 것은 부모가 없었던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 라는 명령 안에서 증명된다. 모든 인류는 성장하여 배우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는 명령 하에 살아간다. 즉 결혼이라는 1인 남성과 1인 여성이 부부가 되는 제도는 문화적인 결과로서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맺어준 관계이며 공동체인 것이다.

모든 인류는 가정이라는 최소 공동체 단위에서부터 사회를 만들어내는 힘을 얻게 된다. 출산으로 인한 사회구성원의 증가뿐 아니라,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사회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교육’ 역시 일어나는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가정은 사회에서 살아갈 방법을 배우는 교육공동체이기도 하였다. 가인과 아벨이 농업과 목축업을 하였으며³ 라멕의 세 명의 아들은 각각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⁴

³ 창세기 4:2,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⁴ 창세기 4:19-23,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쉴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

라는 설명이 있다. 분업화 된 현대와는 다르게 옛 세대들에서부터 생업과 직업에 관련된 것을 가정 안에서 보고 배우고 체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의 역할은 직업에 관련된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특별히 구약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을 전수하는 것에 그 목적과 방향성이 있었다. 각 가정은 기독교적 신앙 인격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교육을 역할을 감당하는 전진 기지였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을 통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전수하였고 나아가 민족공동체 의식 및 사회화를 심어주는 역할을 감당하였다.⁵

이러한 구약 가정의 신앙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반석은 신명기 6장 4-9절의 ‘쉐마’ 라고 할 수 있다. 구약에 나타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쉐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모세의 당부였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을 땅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잊지 말라는 것이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천지창조의 하나님, 족장들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이 모든 역사와 율법을 각 가정에서 가르쳐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쉐마의 말씀을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 6:4-9)⁶

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쉐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⁵ 김미경, 『기독교 가정신앙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1999), 16쪽.

⁶ 신명기 6장 4-9절

쉐마의 어원으로 쉐난(שָׁנַן, shannan)이라는 말은 ‘암송하다’, ‘자국을 남기다’ 라는 번역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르치다는 의미로 통하는데 원의미는 ‘연마하다’, ‘(칼 등을)갈다’, ‘깨뚫다’, ‘깨우치다’ 의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다. 신명기의 쉐마의 정신은 반복과 깨우침을 통하여 자녀들의 마음에 자국을 남기는 반복적인 교육인 것이다. 이는 지적인 가르침을 넘어, 일상 생활전반을 실시되는 모든 행위를 통하여 실행되는 통전적이고 전방위적인 신앙교육인 것이다.⁷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은 마음,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이자, 예배이며 동시에 신앙인의 실존이다. 신명기서 전반에 가정신앙교육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며 부모의 역할의 소임을 다 할 것을 명령한다. 최소 단위의 가정에서의 가장 큰 역할이 하나님과 가족 구성원 특별히 다음세대를 연결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히브리어로 가정, 집은 혼히 (bayit, 바이트)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이 집은 보통의 가옥(출 12:7등), 성내의 가옥(레 25:29), 문설주가 포함된 단단한 집(신11:20) 등을 가르키는 말로 사람들이 주거하며 편히 쉬는 집을 뜻한다. 또한 이 용어는 구조적 소형 건축물과 동시에 가족이나 권속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아브라함의 권속(창18:19), 야곱의 권속(창 35:25) 야곱의 집의 사람들(창 46:27), 이스라엘의 집(출16:31)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⁸

구약성경의 가정의 원어를 보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집에서 함께

⁷ 김도일, 『교육인가 신앙공동체인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32~33쪽.

⁸ Laird Harris, Gleason Archer, Bruce Waltke,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번역위원회 역, 『구약 원어 신학사전』 (서울: 요단 출판사, 1986), 130~131쪽.

살아가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뜻함과 동시에 넓은 의미로는 권속 그리고 민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벵엘(betel, 벵엘)인데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⁹

벵엘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곳에 잠시 거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들을 세워 기둥을 만들며 지은 이름이다. 즉 작은 단위의 가정과 하나님의 집, 성전이 유기적으로 의미가 소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토대는 신명기를 공유하며 쉼마의 정신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들의 독특한 신앙고백 쉼마-출애굽이라는 민족적 대사건을 일으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들의 종교교육으로 연결되었다. 비록 일정한 학교교육의 형태를 이루지는 않았지만, 어떤 제도가 아니라 생활 한 복판, 특별히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기 위한 교육과 노력은 계속되었다. 직업적인 교사는 없었지만 부모, 예언자, 제사장, 현자, 시인(시편을 저술한)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를 맞대며 다음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였다. 특별히 부모의 역할은 지대했다. 앞서 언급한대로 단순한 자연적 유대관계 그 이상의 종교적 공동체가 가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은 어떻게 가정이라는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행했나? 오인탁 외 4인이 함께한 『기독교교육론』을 따르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가정에서의 교육은 극히 비공식적인 교육방법으로서 생활과 가사와 직결된 생존을 위한 직업교육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⁹ 위의 책, 131-132쪽

② 아버지의 절대 권한으로 통제하는 교육방식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잠언서, 전도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등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생활의 규범을 아버지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교육되었다.

③ 구전방법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시행하였다. 전수내용은 역사 속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구원사건을 압축시킨 성서의 이야기들이었다.

④ 종교의식에 의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일 등이었다.¹⁰

이러한 구약의 가정신앙교육은 그 가정예배 안에서 가장 꽃 피웠다. 성경 안에서도 가정예배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키에르 케고르의 말처럼 ‘신 앞에 선 독단자’ 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관계이기도 하다.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잡아갈 때 그가 이끄는 가정과 공동체에 큰 선한 영향을 미쳤다. 노아의 경우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가정예배를 드렸으며, 홍수 이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 족장의 시대를 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하나님의 도와 의를 지켜 행하게-앞에 순종하며 그와 가족들, 그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 하는 것을 이어야 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가정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해지는 모든 공공간에서 제단을 쌓고 가정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모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듯이(창 12:7),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예배 하였다.(창 26:25) 야곱 역시 불안한 마음으로 고향을 밟기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제단을 쌓으라 하셨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야곱은 그 개인의 경건뿐 아니라 가족의 경건을 공동체에 요구하였다.¹¹ 이처럼 아브라함부터 흘러내려온 가정예배를

¹⁰ 오인택 은준관 정우섭 고용수 김재은,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4), 124쪽.

¹¹ 창 35:2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통한 종교의식이 대대로 내려움을 알 수 있다.

신명기의 쉼마정신이 태동하고 확고해질 무렵, 여호수아는 온 백성 앞에서 이러한 가정예배와 신앙을 고백하였다.¹² 물론 이러한 가정신앙교육과 가정예배, 신앙이 흔들리는 역사의 흐름이 있었고, 그러한 시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김없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것은 굳건한 국방력이나 예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였으며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은 신앙교육, 가정신앙교육, 가정예배였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가정신앙교육

신약성경은 구약의 가치관을 계승하며 ‘가정신앙의 전통’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 역시 공생애 전까지는 가정에서 신앙과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가정신앙교육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¹³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을 놀랍게 하였던 것은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어린이 예수의 모습이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에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씀하셨다.¹⁴ 가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빼고 이야기 할 수 없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역할의 무게가 생명의 무게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율법에

¹² 수 24:15 나와 내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¹³ 눅 2:46-47,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¹⁴ 마 15:3-6,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 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 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명한바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명령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핑계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행위라고 덧붙여 말씀하신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 관계는 바른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돈독해지고 더 화목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자식 간의 관계는 다음세대들의 윗세대 공경이라는 일방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다음세대 특별히 어린이에 대하여도 천국에 대한 자격과 함께 말씀하셨다.¹⁵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 어린이와 같이 낮춰야 천국에 큰 자가 될 수 있으며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다.(마 18:3-5) 이는 천국에 대한 자격이 ‘겸손’ 임과 동시에 어린이를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어린이가 미숙하고 더 자라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해주고 마음을 다하여 돌보아야 할 존재로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신약성서에서 가정을 표현하는 헬라는 οἰκία(오이키아)와 οἶκος(오이코스)이다. 앞선 οἰκία(오이키아)가 건축물로서 ‘집’ 과 ‘가족’ 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로 쓰인다면, 뒤이어 나오는 οἶκος(오이코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인다.¹⁶ ‘가정’ 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처소’ 의 의미도 있다. 구약과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집과 성전은 같은 어원의 단어를 쓰고

¹⁵ 마 18:3-5,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¹⁶ Gerhard Kittel, Gerhard Friedrich,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깃텔 단권 신약원어 신학사전』, (서울: 요단 출판사, 1986), 538쪽.

있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 앞의 가정은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혈육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의 공동체도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이후의 가정은 가정임과 동시에 가정교회가 되었다. 이러한 가정교회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또한 끊임없이 가정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가장 작은 단위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요구한다. 성전과도 같은 사명을 지니고 신앙교육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중요성과 신앙교육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흘러갔다.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으며,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서를 함께 읽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다. 초대교회의 가정들은 교회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을 영위했으며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성찬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¹⁷

이러한 개인과 가정의 예배와 찬양이라는 창조의 이유¹⁸를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당연히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다. 서신서를 통하여 바울은 부부의 사이 사랑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과 연합하여 에로스적 사랑을 넘어 아가페의 사랑이 부부 사이에 존재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됴고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에베소서 5:22-25)

¹⁷ 사도행전 2:44-47,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¹⁸ 사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복종이라는 단어가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꽤나 불편한 단어이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랑으로서의 섬김이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복종하라는 의미이다. 자신의 행동의 제약들이 배우자의 생각하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남편에게는 더욱 큰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한 것 같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부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배려와 존중은 이 둘 사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모님의 상호 배려와 사랑으로 엿보아 알 수 있는 삶의 교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교회의 연결성을 가진 가정을 기반으로 했을 때, 신앙교육이 일어나며 자녀에게 신앙이 흘러간다. 바울은 이러한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활동했음을 서신의 문안을 통해 간접으로 보여주고 있다. 로마서 16장 5절¹⁹과 골로새서 4장 15절²⁰, 고린도전서 16장 19절²¹ 등을 살펴보면 가정에게 문안하는 것을 교회에 문안하는 것과 병행하거나 동일시 하고 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가정신앙교육

신약시대의 가정교회의 흐름은 기독교가 주류의 종교로 자리잡고 주교들 중심으로 신학과 교회의 권위를 독점하게 되자 중앙집권적 교회의 모습으로 대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 말씀의 해석과 선포는 오직 주교 중심으로 되었기에

¹⁹ 로마서 16:5,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²⁰ 골로새서 4: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늑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²¹ 고린도전서 16:19,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부모의 신앙교육은 약화되고 소홀히 해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안에서 가정 안에 신앙교육을 강조한 사람도 있다. 주교 중심의 교회교육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4세기 초 크리소스톰(St. John Chrysostom)은 On the Right Way for Parents to Bring up Their Children 『부모들의 자녀 양육을 위한 올바른 길에 관하여』라는 글을 발표하였는데, 크리소스톰은 이 글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하였다.²²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 신앙교육에 대한 부분이 몇몇의 신학자에 의해서 강조되어 왔지만, 주류의 흐름은 신학교를 통한 목회자 양성과 교회를 통한 중앙집권적 교육이 이어져 왔다.

종교개혁에 이르러 가정신앙교육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종교개혁의 첫 발걸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루터는 기존의 학교가 실시하는 신학교육이 성직자들의 양성에 제한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루터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역은 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이며, 성경을 포함한 모든 과목도 이를 위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루터의 기독교교육 관점의 특징은 기독교교육을 넓게 보면서 교육이 교회와 신학교에서 확대되어 사회와 가정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기독교 가치관의 교육임을 알 수 있다.²³ 루터에게 있어서 가정은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장소일 뿐 아니라,

²² 박종석,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의 가정교육”,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6), 67쪽.

²³ 양금희, “기독교교육이란 무엇인가?”, 『기독교교육개론』, 21쪽.

하나님과 처음 만나게 되는 최초의 교회이자, 신앙학교가 되는 것이다.

그는 또한 가정예배의 실행을 강조했는데 만인제사장직에 근거하여 부모들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신앙과 기도의 중요성을 문답방식으로 가능한 가장 쉽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녀들은 이를 잘 경청하고 마음으로 배워 믿음과 사랑을 함양해야 했다. 루터는 이를 위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각 가정마다 성경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소교리문답서와 성인 초신자의 세례교육서로 대교리문답서를 같은 해(1529년)에 작성했다. 그는 성인들의 성경과 교리 지식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탄식하면서 자신들의 문답서들을 계속 사영하여 믿음의 지식을 증진할 것을 기대했다. 특히 가장은 자녀들이 배운 바를 매주 한 차례 확인하고 자녀들의 지식이 부족하면 신실하게 배우도록 훈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²⁴

존 칼빈(John Calvin)은 가정과 교회의 유기적이고 영적인 연계성을 말하며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묶여진 일종의 언약공동체로서 정의하였다. 칼빈은 가정 안에서 부모가 행하는 신앙교육은 교회교육의 일부이며 나아가 공적책임이라고 말했다.²⁵ 칼빈은 가정의 정체성을 이야기 할 때 “작은 교회”라 지칭했다. 가정이 작은 가정이라면 교회는 큰 가정이며 또한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한다면 가정은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가정과 교회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복음의 모든 사역과 교육에 이바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가정 안에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다면, 부모는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고 말씀과 교육함에 의무가 있는

²⁴ 유해무 외 7인 공저, 가정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생명의 양식,2018), 24쪽, 김재광, 『통성경 가정예배』, 20쪽 재인용

²⁵ William Barclay, Educational Ideals, in the Ancient World (Grand Rapids:Baker Book House, 1959), 14쪽, 신형섭, 『가정예배 건축학』, 45-46쪽. 재인용.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성서의 번역으로 인하여 더 수월해졌다. 다년간의 고학력이 필요했던 성서의 해석과 말씀은 일상 생활의 언어로 성서가 번역되어 출판됨으로 가정 안에서도 성서교육을 비롯한 신앙교육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칼빈은 언약에 기초한 유아세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1차적으로 부모의 신앙에 따라 유아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2차적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자라가야 함을 말했다. 이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이 신앙이 잘 자리잡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을 가르쳐야 했기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가정예배를 중요시 한 것이다.

제 III 장

언택트 시대의 가정신앙교육의 기능

언택트 시대의 부모와 자녀

코로나의 위기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다. 인류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4차 산업과 인공지능의 발달을 이루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러한 결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많은 부분들이 대체되고 넘어움에 따라 가정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부모세대들은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자녀는 온라인으로 학교교육과 예배 등을 진행함에 따라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다양한 갈등이 일어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운영하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의 올해(2020년 1월~11월) 청소년 상담 건수는 29만5000여건에 이른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 간 접촉이 잦아지면서 ‘가족 문제’로 상담을 받는 건수는 4만31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8% 늘었다. 정신건강 상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했다. 부모 자녀간의 갈등이 70% 이상 늘었지만 부모 외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의 증가폭은 116% 이상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다.²⁶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늘었고, 그 이상으로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폭증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정폭력이 늘어나며 그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실태보고는 계속되고

²⁶ 임재우, “청소년 가족문제 온라인상담, 지난해보다 75.8% 늘어” 『한겨레신문』. 2020년 12월17일.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미주 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 카리사 에티엔 사무국장은 화상 회견에서 미주 지역의 정신 보건 위기를 우려하며 이를 위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²⁷

코로나 19로 인해 촉발된 새로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야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부모들에게 큰 스트레스이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라인 수업을 계획하고 구축해야 하는 교사의 헌신도 크겠지만,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도 들어야 하고, 순차 등교 등으로 불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며 다양한 평가와 아이들의 건강까지 챙겨야 하는 부모들은 큰 짐을 져야 했다. 아이들 역시 학교와 학원보다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오는 스트레스, 친구와의 대면관계 축소, 어색한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스트레스가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야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언택트, 비대면의 시간의 증가는 가정폭력, 갈등의 위기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가정 안의 면대면 시간을 증가시키고 부모와 자녀 세대의 화목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 시기 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초4-고2)간의 대화시간이 평균 13분이었다. 그러나 언택트 시대는 이러한 가족간의 시간을 강제적으로 늘리게 되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1일, 만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전국 5,072가구의 7,170명 청소년이 본 실태 조사에 응했으며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의 삶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변화가 많았다. 학교생활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한 청소년은 48.4%,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한 이들은 11.4%였다. 사회에 대한 신뢰는 부정적으로

²⁷ 이미경, “WHO 코로나 대응행에 정신보건·가정폭력 위기 맞았다”, 『한국경제』, 2020년 8월 19일

변화했다가 43.7%,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가 8.3%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한 청소년이 22.1%,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한 청소년이 9.6%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저녁 식사와 여가활동 등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이 증가하고 어머니와 주중 매일 30분 이상 대화하는 비율도 76.2%로 증가했다.²⁸ 평균 13분 대화하는 가족에서 매일 30분 이상 대화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대화는 화목한 가정의 가장 큰 바탕이 된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가정이 모이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에 가족간의 돈독함으로 향하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세대 신앙교육을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현장예배가 단히게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와 신앙교육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지금껏 부모는 신앙의 대부분의 교육을 교회에 일임해 왔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교사로서의 역할을 갑자기 부여 받은 것이다. 물론 가정을 장으로 하는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은 그 이전에도 꾸준히 강조되어왔지만,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온라인 체계로 교회학교의 교육들이 변화되며 급속히 강조되었다. 교회학교의 예배와 공과모임을 비롯해 여름성경학교, 신앙공동체 훈련, 선교여행 등도 중단된 상태로 인해 이러한 여러 신앙교육은 제한된 온라인예배와 함께 오직 가정에서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즉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기존의 보호자 역할에서 가정의 제사장 그리고 신앙교사의 역할까지 지혜롭게 감당해야 할 시대가 된 것이다.

공유성을 기르는 가정신앙교육

²⁸ 편슬기. 청소년실태, “코로나로 가족관계 좋아졌지만”. 『팝콘뉴스』. 2021년 4월 21일

가족구성원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다. 모범의 되는 가정의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이끌어주며 때때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지혜로움을 주며 그 연령의 위기상황들을 해결해준다. 자녀 또한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라며 부모님의 삶과 기도제목 등을 통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부모를 이해하며 존경한다. 조병호 박사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입맛을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의 언어를 배웁니다. 또한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한다면, 그 자녀는 당연히 훌륭한 사회인으로 잘 자랄 것입니다.²⁹

자녀들은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를 통해 배우고 느끼고 자라나는 기준점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대에 맞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전문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 역시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와 자녀가 극복해야 할 요소들을 인지하는 것이다. 부모가 경험한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주는 가르치는 것은 신앙교육의 효과가 적다.

신앙교육이 잘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과 대화이며 공유성이다. 언택트 사회의 가정신앙교육은 탑다운 방식의 일방적인 구조에서 탈피하여 함께 목적지를 정하고, 함께 의논하며 배우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전통사회와 산업사회의 모습은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모습을 일방적으로

²⁹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스쿨* (서울: 통독원, 2015), 40-41.

가르치기에 충실했다면, 언택트 사회는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며 양방향으로 공유하는 시대이다. 물론 ‘신앙’이라는 영역은 체험적이다. 그렇기에 부모가 다음세대보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 모두 처음 경험하는 세상이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오히려 자녀세대들이 더 적응력이 뛰어날 수도 있다. 언택트 사회의 가정신앙교육은 일방적 구조가 아닌 가족구성원이 함께 이 코로나의 시대의 위기를 경험하고 서로 배워간다는 점에서 가르침이 아닌 공유의 개념이다. 또한 이러한 공유된 위기 앞에 해결책과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사회공동체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로서 신앙공동체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적 가치관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유의 개념은 토마스 그룹을 통해서 더 명확히 할 수 있다.

신경민은 그의 논문을 통해 ‘공유된 실천’에 대한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룹은 교회와 신앙에 대하여 사회가 우호적이지 않은 문화가 발달하고 있을 때, 이러한 문제 앞에서 자녀세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지 대한 고민과 해결책으로 1983년 ‘공유된 실천’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안한 ‘공유된 실천’의 이론의 첫 번째 특징은 공동체가 함께 시대의 상황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성경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 내의 고민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이유는 고민을 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내어놓고 공유하기 시작했을 때 참된 교육적 효과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가 성경의 빛 안에서 함께 그 해결책과 실천방향을 함께 해석해 낸다는 점이다. 함께 해석한 방향은 역동성을 지니며 비전을 지니며 공동체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이 공유된 실천을 통한 가정교육은 삶에서 시작되고 신앙으로 함께 공유되어 해석되며 그 가족 공동체의 해석이 다시 삶으로 연결되어진다.³⁰

³⁰ 신경민. “21세기 언택트 시대의 기독교가정교육에 관한 연구-공유성·변형성·통전성에 기초한 STW 가정교육모델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 박사학위논문.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21년 8월, 133쪽

공유라는 개념이 가족들이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 그 무엇을 말하는 것에 한정되어선 안 된다. 가족들의 삶, 그 자체를 공유하는 것이며 특별히 신앙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신앙교육이다. 이러한 신앙은 시대적 아픔을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함께 노력할 때 성숙해 지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의 첫 시작은 ‘대화’ 여야 한다. 대화라는 것은 단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가정 안에서의 대화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토론과는 질적으로 다른 방식이다. 대화는 겸손과 사랑, 신뢰와 희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가정의 불완전성을 인지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 완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 대화는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가정과 하나님 사이에도 그 대화는 머물러 있어야 한다.³¹

가정 안에서의 대화를 통한 신앙교육은 가정의 공유성을 기르게 된다. 서로의 삶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며 인지하고 서로 함께 하는 공유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다. 가정 안에서의 바른 대화, 기도 생활, 가정예배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다.

변형성을 기르는 가정신앙교육

우리는 매일을 살아간다. 연속된 순간들을 살아가며, 가정은 그 연속된 순간에 추억과 사랑, 경험과 습관이 쌓여 현재의 모습을 이루었다. 어제의 가정과 오늘의 가정, 그리고 내일의 가정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조금씩은 변화되어가고

³¹ Thomas H. Groom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Sharing our story and vision*, 이기문 역. 『기독교적 종교교육』. 서울:교문사, 1983, 279쪽.

있다. 언택트의 시간을 통과하며 가정은 더 많은 시간을 가족구성원이 공유하게 되고, 우리는 가정의 신앙교육을 통해 이러한 변화들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기를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은 가르침과 배움, 경험 등을 통해 ‘성장’ 하는 부분이기 도하며 동시에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른 ‘변형’의 부분이기도 하다. 신앙과 영성이 가정 안에 더하여 지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과 그 구성원은 “성령을 통한 창조적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가정 안에서의 공유성에 대하여 토마스 그룹이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면 제임스 로더(James E, Lorder)는 변형성(초월성을 통한 질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언택트 시대, 확보된 가정의 대화와 교육의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갈등이 야기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의 해결 방안은 대화와 온전한 교육으로도 가능하지만, 치유를 넘어 한 차원 높은 문제 해결과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과 영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로더의 이론들의 흐르는 주제는 “성령을 통한 창조적 변형”이다.

쉐마는 가정 내의 변형성의 중요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정신앙교육의 증거가 된다. 가정이 일상의 삶의 가르침과 전수를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변형을 우선시 여긴다는 점에 쉐마의 말씀은 신앙을 통한 변형성의 강조라 할 수 있다. 신약성서에서 소개하는 가정의 대표말씀인 에베소서 5,6장에서는 가정의 질서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동일시하였다.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공경, 그리고 형제 사랑함을 강조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명시하면서 가정에서 역사하시며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역할과 그 분의 변형적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장소이다. 또한 임재하시는 공동체이다. 가족구성원은 가정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뻐하며 축하하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한다. 특별히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축하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형식적인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가정의 중심이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친교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격려하며 칭찬하여 마음을 북돋아주어야 하며, 자녀도 부모에게 감사와 존경의 축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배는 4차원적이며 변형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축하의 행위이며 기도는 가족 구성원간의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의 긴밀한 격려와 변형의 행동이 된다.³²

³² 신경민. “21세기 언택트 시대의 기독교가정교육에 관한 연구-공유성·변형성·통전성에 기초한 STW 가정교육모델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 박사학위논문.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21년 8월, 157쪽

제 IV 장

다음세대를 통한 가정신앙교육 실제 (한소망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한 언택트 시대의 가정신앙교육의 기능을 살리고 있는 실재를 한소망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한 부서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 교육부서가 가정 안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어떠한 교육과 활동들이 있는 지 기술하고자 한다.

A 해피 영유아유치

한소망교회의 미취학부서, 즉 1-7세까지의 부서명을 “해피영유아유치” 라고 하고 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의 세 부서의 연합체이며 세 명의 교육전문 목회자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님과 함께 가정 내에서 신앙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연합프로그램에는 “키즈쿵” 과 “말씀 놀이터” 이 두 가지가 있다.

- 키즈쿵

‘키즈쿵’ 은 부모와 함께 자녀가 기독교적 요소가 가미된 요리를 함께 해봄으로써 그 안에서 가정신앙교육이 일어나게 하는 교육활동이다. ‘키즈쿵’ 은 요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집중력, 관찰력, 성취감, 자신감, 언어, 창의력, 수학, 과학교육 등)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이다. 언택트 시대로

돌입하면서, 보호자와 함께 교회 현장에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줌(ZOOM)으로 가정 내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환되었다.

‘키즈쿡’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 요리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오감으로 배우고 알게 하고 둘째, 키즈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뵘이”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된다.

키즈쿡을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직접 요리에 참여하여 재료를 탐색하고, 변화를 관찰해 봄으로써 식생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식생활지도를 받게 된다. 또한 다양한 요리 활동을 통하여 경험하고, 다양한 영역(수, 언어, 과학, 소꿉, 쌓기 등)의 사전, 사후활동을 해봄으로써 통합적 발달을 도모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를 개발하여 세상의 빛,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될 것을 기대한다.

키즈쿡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매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고 있다. 소개되는 키즈쿡은 2020년 하반기에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6주간 각 가정에서 진행되었다. 2020년 이전에는 평상 시 예배 드리던 공간(한소망교회 사랑해방)에서 진행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로 각 가정에서 줌(zoom)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대상은 5-7세로 최소한의 요리가 가능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물론 요리에 불을 이용한 조리는 안전을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다. 2주 전부터 선착순으로 25명의 제한된 아이들만 받게 되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의 인원수와 요리를 위한 재료의 수량 등을 이유로 선착순으로 진행하였다.

줌(ZOOM)으로 각 가정에서 진행하게 되어도,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미리 준비된 요리재료를 나눠주었다. 따라서 등록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7만원으로 받았으며, 형제 자매가 같이 프로그램을 받을 경우 둘 중 한명에게 50%의 금액을 할인하였다.

키즈쿡은 총 6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주차별로 진행된 주제와 요리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공평, 인내, 순종, 배려, 감사, 섬김의 6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각 말씀과 함께 진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평’이라는 성품주제를 진행할게 될 때는 친구들과 함께 놀 때 모든 친구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을 아모스의 말씀과 함께 가르치게 된다. 그 주의 음식은 돼지 떡바 만들기인데, 평소 잘 좋아하지 않던 돼지라는 동물을 꾸미고 음식으로 만들며 다른 동물과 같이 친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친구관계에도 투영된다. 부모님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아이의 상황에 맞는 교육을 지도하게 되는 것이다.

< 표 > : 키즈쿡 시즌 6의 주차별 주제 및 요리

일시	키즈쿡 토픽
1주차 (11월 7일)	공평 (똑같이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아요) - 아 5:24 - 돼지 떡바 만들기-
2주차 (11월 14일)	인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뎌요) - 히 10:36 - 돌돌 김밥과 궁중떡볶이 만들기-
3주차 (11월 21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요) - 삼상 15:22b - 쿠키 만들기-

4주차 (11월 28일)	배려 (다른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며, 보살피 주세요) - 눅 6:36 - 얼굴 쿵케익 만들기-
5주차 (12월 5일)	감사 (고마운 마음을 전해요) - 살전 5:18 - 토마토 스파게티 만들기-
6주차/ 수료식 (12월 12일)	섬김 (정성을 다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 막 10:45 - 고구마 타르트 만들기-

키즈쿡의 세부적 Time table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순서로 식탁예절을 나누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인사, 손씻기, 요리를 위한 테이블 정리, 그리고 오늘의 요리를 설명을 듣게 된다. 미취학의 아이들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단계이다. 특별히 인사와 손씻기는 예의범절과 개인방역에 가장 기초적인 행위이다. 아이들은 화면을 통한 목회자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인사하며 환대받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또한 손씻기를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깊이 들어가는 트리거 역할을 한다.

이후에 목회자는 어린이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식재료를 ‘궁금바구니’에서 꺼내 보여주며 호기심과 기대를 유발하게 한다. 생소했던 식재료의 이름을 알리고, 영어의 이름 또한 가르친다. 간단한 요리도구들의 명칭과 사용방법 또한 배우게 된다.

식재료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걸모습 - 촉감 - 속모습 - 냄새 - 맛의 순서로 관찰하게 되며 어린이들은 다양한 표현으로 이를 발표한다. 이후 재료를 다듬고 요리를 시작한다. 최대한 불을 쓰지 않고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게 되는데, 요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그 주의 메시지를 언급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꿀과 함께 말씀을 외웠던 것처럼, 입체적으로 말씀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

요리가 완성되면, 일차적으로 가족과 함께 맛보게 되고 성경메시지가 적힌 포장지로 요리를 포장하여 친구 또는 이웃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진행된다.

< 표 > 키즈쿡의 세부 타임테이블

시간	내용(곡명)	담당	비고
오프닝(10') 10:30-10:40	교사기도 테이블 세팅 및 재료 세팅 아이들 맞이 & 출석체크, 이름표	교역자 및 담당교사	음악 찬양 AR
성품스토리(5') 10:40-10:45	성품스토리중심으로 오늘의 요리 나누기	부모님	
인사 및 규칙(10') 10:45-10:55	손 씻기, 앞치마, 요리 모자 착용 오늘의 반장! (차렷!인사!) 요리도구 다루기: 포크, 접시, 칼/ 질서, 발표	부모님과 어린이	

재료 소개(5') 10:55-11:00	궁금 바구니를 통해 오늘의 재료를 알아보는 시간	목회자	PPT
재료 준비(15') 11:00-11:15	재료 자르기 및 다듬기	어린이	
요리하기(15') 11:15-11:30	요리 진행	부모님과 어린이	
맛 나누기(10') 11:30-11:40	완성한 요리를 맛보고 느낌 나누기	부모님과 어린이	
포장하기(5') 11:40-11:45	만든 요리 포장하기	부모님과 어린이	
포토 타임(5') 11:45:-11:50	완성된 요리를 가지고 사진찍기	부모님	
정리 시간(10') 11:50-12:00	자기 자리 정돈하기	부모님과 어린이	
귀가(5') 12:00-	가족들과 함께 포토타임 & 활동 나누기	부모님과 어린이	

<그림> 키즈쿡 시즌 6의 1주차 3주차의 PPT 사진



B. 말씀놀이터(가정예배)

말씀놀이터는 가정예배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미리 제작된 영상으로 각 가정에 정해진 시간에 유튜브로 송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주제에 따라 찬양, 기도, 말씀이 진행되는데, 장난감 및 활동기구와 함께 말씀을

놀이와 함께 다시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체험하게 된다. 4~6주차로 구성된 한 시즌이 완성되는데, 일 년에 6시즌이 진행되고 있다.

< 그림 > 말씀놀이터를 위해 각 가정으로 나간 안내일정과 유튜브 표지



1. 여름여행과 함께하는 말씀놀이터 (어디가 시즌3)가 7월 18일 주일부터 8월 8일 주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예배 주제	키트	활동내용
1주	와! 하나님이 만드신 해달별이다!	모빌 만들기 색연필	해달별 가족 만들기
2주	와! 하나님이 만드신 고래다!	고래튜브	고래랑 놀아놀아
3주	와 하나님이 만드신 까마귀다!	캠핑 간식	까마귀가 날라준 암암이
4주	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토이쿠키 세트	토이쿠키 에덴동산 만들기



[여름 여행과 함께하는 말씀놀이터] 와! 하나님이 만드신 ...



[여름 여행과 함께하는 말씀놀이터] 와! 하나님이 만드신 ...



[여름 여행과 함께하는 말씀놀이터] 와! 하나님이 만드신 ...



[여름 여행과 함께하는 말씀놀이터] 와! 나를 만드신 하나...

영유아유치 아이들에게 친근한 장난감들로 말씀을 듣는다. 가정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장난감으로 다시 실현해보니 더욱 기억에 남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엄마 아빠와 함께 말씀으로 놀이를 할 수 있어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급격히 늘어난 공유된 가정시간에 무엇으로 놀아주어야 할지 모르는 부모에게 말씀과 놀이감을 제시해 주니 효과적인 부모교육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18일부터 4주간 진행된 말씀놀이터(어디가 시즌3)의 1주차는 선생님들의 연극으로 히스기야 해그림자 이야기(왕하20장)를 진행되었다. 평상시 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교육자원부에서 제공되는 애니메이션으로 성경이야기를 접했다면, 어린이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주도하여 연극을 진행하기에 아이들의 몰입도가 더 높을 수 있다.

<그림>교사참여 연극



2주차는 여름방학에 맞게 동물 튜브로 요나 이야기(욘1장)를 진행했다. 요나의 이야기를 풀장의 튜브 위에서 다시 들으며 체험적 성경학습이 되는 것이다. 3주차는 최근 유행하는 “똥 밟았네” 노래와 율동으로 까마귀를 주인공으로 그릿시넷가의 엘리야 이야기(왕상17장)를 만들었다. 4주차는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동물 풍선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창2장)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드림어린이

한소망교회의 아동부서, 즉 8-13세까지의 부서명을 “드림어린이”라 하고 있다. 전학년 부서이며 현재는 방역을 위해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나눠 예배 드리며 세 명의 교육전문 목회자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님과 함께 가정 내에서 신앙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연합프로그램에는 “ABC가족성경캠프”와 “공감스쿨”, “온가족 집콕놀이” 세 가지가 있다. 또한 가정예배에 대해서도 교육과 도움을 주고 있다.

A. ABC 가족성경캠프(Amazing Bible Camp)

ABC 가족성경캠프의 가장 큰 컨셉은 초막절이다. 초막절은 유월절, 칠칠절(오순절)과 함께 구약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이다. 유월절은 출애굽 하루 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며 동시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곡식을 심는 날이기도 하다. 칠칠절(오순절)은 유월절의 50일 후, 심은 곡식을 추수하는 첫날이며 초막절은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것을 마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 광야 생활 중에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을 이스라엘 대대로 알게 하셨다. 즉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동시에 광야의 위험한 40년간 함께 하셔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각 가정의 공동체에게 이것을 지키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이러한 초막절을 현대 한국교회의 상황 하에서 재해석하여 만든 것이 ABC 가족성경캠프이다. 짧게 말하자면, 부모와 함께 교회 안에서 1박2일 동안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ABC 가족성경캠프는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말씀 읽기와 가르침, 교제를 통한 은혜의 가정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동일하게 우리가정에 함께 하심을 알게 한다. 둘째,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의 가정으로 불러주심을 느끼게 한다. 셋째, 우리 가족이 성령님과 동행함을 알게 하고 말씀 앞에 선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abc 가족성경캠프는 아래의 표와 같이 진행된다.

<표> ABC가족성경캠프 진행표

시간	내용	둘째날	
16:00 - 17:00	준비모임	08:00 - 09:00	아침식사, 세면
17:00 - 18:00	식사준비	09:00 - 09:15	찬양 및 메세지
18:00 - 19:00	저녁식사	09:15 - 09:45	부모가정예배교육/ 어린이체험 (출애굽-홍해사건 만들기)
19:00 - 19:30	저녁예배	09:45 - 11:20	가족운동회
19:30 - 20:10	텐트설치 및 꾸미기	11:20 - 12:00	가정예배 및 서약서 작성
20:10 - 20:30	성경읽기	12:00-13:00	점심식사
20:30 - 21:30	레크리에이션		

21:00 - 22:00	자유시간
22:00 - 23:00	아이들(놀이), 부모(양육태도검사) PAT
23:00 - 23:10	축복의 만남
23:10 - 23:40	취침준비(세면)
23:40 ~	굿나잇 이벤트

가족들은 개인적인 명찰과 함께 가정명패를 하나 받게 되는데 앞면에는 각 가족구성원의 이름들이 뒷면에는 미리 받은 가족 사진을 프린트하여 넣는다. 텐트를 각 가정별로 개성있게 꾸밀 수 있는 꾸미기 재료도 미리 준비한다. 또한 오른쪽 사진 안에 있는 텐트처럼 미리 텐트를 꾸며 각 가정이 어떤 식으로 꾸밀 수 있는 지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림> ABC 가족성경캠프에 준비된 텐트를 꾸밀 준비물과 예시 텐트



텐트설치 및 꾸미는 시간은 가족이 합심하여서 텐트를 설치하고 교회에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텐트를 가족별로 개성 있게 꾸미는 시간이다.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의 미션을 해결하는 것은 많은 교육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유익을 주는데 특별히 종교적인 부분에서 아버지가 가장 역할을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이러한 텐트 설치를 하면서 아버지와 자녀가 좀 더 친밀하여지고 특별한 시간으로 만드는 것 같다.

<그림> ABC가족성경캠프 텐트 설치 예시



ABC 가족성경캠프 기간 가정의 부모님은 부모(양육태도검사)PAT를 받게 된다. 전문검사자를 초청하여 진행하게 되는 데, 자녀와는 분리되어 부모님만이 참여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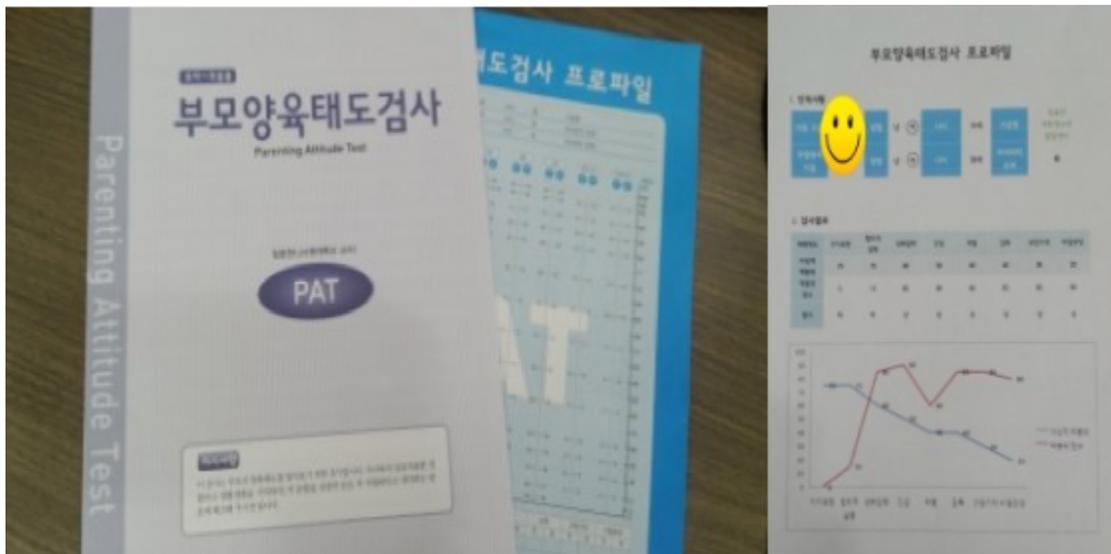
부모양육태도검사(Parenting Attitude Test)는 부모의 양육의 모습을 8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여 각각 점수화시켜서 비교한 검사이다. 이 검사 결과는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간섭, 처벌, 감독, 성취 압력, 과잉기대, 비밀관성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부모의 양육에 대한 마음 상태를 다른 부모와 비교하여 백분율로 표시되어 각 부모 양측은 양육태도를 객관적으로 알게 된다.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요구,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부모의 기대, 가정의 양육 환경, 사회 문화 등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부모양육방식은 미취학시기부터 평가될 수 있고, 이때 평가된 것이 청소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부모양육방식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이나 많은 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들의 헌신과 배려, 노력으로 자녀를 긍정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사회에 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발달과정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양육태도검사를 통해서 자녀를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되어 부모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양육의 모습과 실제 삶의 양육모습을 비교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그림> 부모양육태도검사와 프로파일 결과지



첫째 날 저녁에 진행되는 굿나잇 이벤트는 거창한 이벤트는 아니다.

취침하기 바로 전에 사회자가 불을 전부 소등한 상황에서 부부, 부자, 부녀, 등의 다양한 가족관계에서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키며 굿나잇 인사를 하게 한다. 가정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많은 가정이 부모와 자녀 간의 스킨십이 없는 가정이 많이 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스킨십은 성격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만큼 부모와의 스킨십이 중요하다. 스킨십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이 사랑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점점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 날 아침에는 부모에게 가정예배에 대하여 교육을 한다. 캠프에서 가정예배에 대한 부모교육을 할 때, 대부분의 내용을 『예배갱신의 사각지대, 교회학교예배』의 ‘9장 가정예배 매뉴얼: 우리 가정에 드디어 가정예배를 세우다’를 기본 베이스로 실시하였다. 또한 잠시 뒤에 가정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때 나눌 이야기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였다. 말씀은 출애굽 말씀으로 진행하되, 각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교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자녀와 예배 가운데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교육 후에 30분 정도 시간을 주었다.

<그림> 가족운동회



가족 운동회는 단순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녀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회의 토요일프로그램인 ‘어와나’ 를 함께 함으로서 자녀들이 교회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체험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웃고 땀 흘리며 자녀의 교회의 생활을 입체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가정예배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너무나 바쁜 일정 속에 끌려 다니고 있고, 가정예배의 필요성도 모르고 있으며, 여러 핑계 대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정예배 인도에 대한 부담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캠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정예배지, 어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여러 도구들로 가정에서 쉽게 교회와 연계하여 가정예배를 교육받고 드릴 수 있기를 목표로 한다.

B. 아빠 엄마와 함께 하는 공감 스쿨 <가족꿈공동체 페어런츠스쿨(부모학교)>

공감스쿨은 가정공동체를 이루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 간 의사소통의 물꼬를 터주는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 간 소통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가족꿈공동체 페어런츠스쿨(부모학교)이라는 부모학교 아래의 과정으로 드림어린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 8주간 진행되며 매주 부모교육, 자녀교육 그리고 온 가족이 참여하는 전통민속놀이 등으로 구성된다.

아버지는 직장 일, 어머니는 자녀양육과 가사라는 부모역할의 왜곡된 인식으로 인하여 가족의 건강한 결속과 소통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가정문화는 결국 건강한 사회적 소통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성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가족결속과 소통을 돕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의
대인관계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공감 스쿨의 목적을 둔다. 가족 간의 지속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전통가족의 견고한 결속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부모학교 로고



부모학교 로고는 무지개색깔로 구성된다. 부모의 영어단어 Parents를 한
글자씩 무지개 색깔(빨주노초파남보 7색)로 표현하였다. 이는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며 보았던 무지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
가족공동체를 의미한다.

공감스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진행된다.

<표> - 공감스쿨 진행표

주요 진행사항	소요 시간	프로그램 내용
• 등록 및 자리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급적 친분이 없는 초면의 가족으로 배정한다. • 서로 학년이 다르게 배정한다.
• 목회자 인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회자 인사 • 시간 엄수
• 영상 시청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시청
• 마음 열기(오프닝)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란? 정체성 회복 • 가족 결속 다지기 <눈 마주 바라보기> • 포옹하기 시범(두 가정)
• 레크레이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래놀이 중심 가족 놀이 • 마술
• 강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 부모의 영향력과 사명 • 자녀 : 부모와의 소통, 비전탐색
• 편지쓰기와 나눔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자녀에게 격려, 응원, 권면의 내용 • 자녀: 부모님과 감동 추억, 감사한 사연 등

• 세족식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 •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효과를 극대화한다. • 대야에 물을 배부하고 동시에 입장하게 한다.
• 기념촬영	5	• 참가가족 모두

공감스쿨이 추구하는 첫 번째 주안점은 ‘가족은 무엇인가’이다.

독일사회학자 엘리자베스 벡 게른스하임의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에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법이나 교육보다도 급속도로 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이라고 했다. 전통적인 혈연중심의 ‘가족(family)’ 이후 다양한 ‘가족들(families)’이 온다는 것이다. 점점 약화되고 구조적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참석자 모두에게 ‘당신이 생각하고’ 가족 ‘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단어로 표현하게 하므로 가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정립함으로써 가족의 가치관, 비전, 사명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 관련 영상과 토론을 통하여 부모로서 가족의 결속과 소통을 돕는 각자 가족의 ‘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감스쿨이 추구하는 두 번째 주안점은 ‘가족과의 결속’이다.

생텍쥐베리는 <사람은 오로지 가슴으로만 올바로 볼 수 있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을 주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그것은 가족도 마찬가지다. 안정된 마음이 아닌 불편하고 거리낌이 있는 심리상태로는 부모 또는 자녀의 눈을 주시할 수 없다.

부부간, 부모와 자녀 간 서로 마주보고 2분간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가족을 이루고 살아오면서 상대방에게 가장 고마운 일과 미안한 일을 한 가지씩 생각하고 서로에게 고백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상보다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의 심리적 안정 상태를 점검하고 관계와 결속 정도를 진단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관계회복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공감스쿨이 추구하는 세 번째 주안점은 ‘부모의식 고취’이다. 즉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라는 의식을 강화하는데 있다. 공감스쿨은 자녀에게 공급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삶의 원천’, 자녀의 꿈과 비전을 찾는 일과 진로를 함께 모색해주는 ‘삶의 지표’, 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제공하는 ‘삶의 자부심’, 그리고 ‘미래의 보장’이 되어 주는 아버지의 사명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버지의 역할이 ‘교편’이라면 어머니의 역할은 ‘자육’이다.

※자육(慈育) : ‘사랑으로 보살피 자라게 함’, ‘자녀를 부드럽게 안아서 기른다.’ 는 뜻을 지닌다. 부모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때 자녀는 안정되고 균형 잡힌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시기의 부모의 결속은 사춘기 자녀 성장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자녀교육과 양육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재설정하는데 유의하다.

공감스쿨이 추구하는 네 번째 주안점은 부모와 자녀 대상의 강의와 전래놀이를 통한 가족공동체 의식의 강화이다. 강의는 공감스쿨이 매 시즌을 진행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자존감 짱짱! 패기 당당! 자녀의 균형성장 돕기’란 주제로 부모와 자녀에게 강의하고 있다. 또한 전래놀이를 통하여 자녀들이 부모세대에 했던 놀이들을 경험하고, 핸드폰 게임과 같이 작은 폰에 갇힌 놀이가 아니라, 신체를 쓰며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한다.

<그림> 공감스쿨에서 진행한 다양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전래놀이



공감스쿨이 추구하는 다섯 번째 주안점은 ‘끈으로 동여매기’이다. 포옹하기, 편지쓰기, 가족세족식 등을 통하여 전래놀이에서 형성된 간접적 유대감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더욱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족의 결속을 위한 스킨십의 중요성을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교적 문화의 영향력으로 스킨십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가정회복사역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자녀를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하루에 네 번을 안아주면 겨우 살고, 여덟 번을 안아주면 그럭저럭 살고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열두 번을 안아주어야 한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에 한 번도 안아주지 않는 부모가 대부분입니다. 하루 세 번 포옹하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를 권장하고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포옹하기’ 를 통하여 모범교육을 실천하게 한다.

오늘날 가족 소통의 수단은 대부분 ‘SNS’ 을 통한 단문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원활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손 ‘편지쓰기’ 를 통하여 가족 간의 마음과 생각을 충분하게 나눌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편지쓰기를 통해 깊이 있는 가족소통을 돕는다.

자녀가 부모의 발을 씻어 드리는 ‘세족예식’ 을 통하여 가족 결속의 절정에 이르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뜻을 행동으로 나타냄으로써 부모보다 오히려 자녀들이 더 깊은 의미를 두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고 있다.

공감스쿨의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소통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소통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비전의 공유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정의 대화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셋째, 부모와의 안정된 관계결속을 통하여 안정된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사제간 또는 교우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학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부모 존중의 마음이 가정 밖에서 어른 존중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C. 온가족 집콕놀이

앞서 설명한 공감스쿨은 대면의 상황 하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체적인 진행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공감스쿨의 중심이 되었던 전래놀이를 줌(Zoom)으로 가정과 함께 8주 동안 “온라인 집콕놀이”라 명명하고 진행하게 되었다.

<그림 > 온가족 집콕놀이를 줌(ZOOM)으로 진행하는 담당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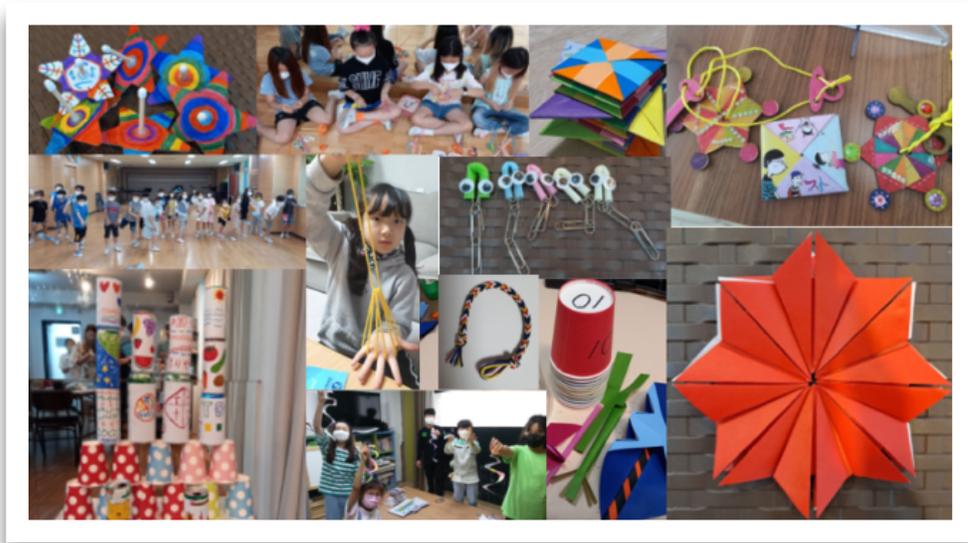
온가족 집콕놀이는 전래놀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의 관계를 조명하여 개선하고 증진시킨다. 아빠, 엄마의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하여 자녀에겐 부모에 대한 이해와 관계회복의 중요성을 알려주어 이를 통해 자녀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찾아 주고 소통하는 가정의 확립에 목적을 둔다.

특히 코로나로 비대면이 확대되고 학교 및 학원에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스마트폰, TV, 컴퓨터게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놀이는 어린이에게 중요한 역학을 하는데, 새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가족과 함께 함으로 원만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또한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통해 자신의 과업을 수행, 발전시키며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 온라인 집콕놀이 배너



<그림> 다양한 전통놀이와 준비물



<표> 전통놀이 활동 목록

회	전통놀이 이름	내용	발달 인성
1	사방치기	일정한 칸을 그려 놓고 안에 돌을 던져 놓은 후 양감질(외발뛰기)로 돌을 주워 나오는 놀이다.	공정
2	비석치기	손바닥 크기의 납작한 돌을 땅에 세워, 상대방의 다른 돌을 던져 넘어뜨리는 놀이	질서, 협력
3	투호놀이	항아리를 일정 거리에 놓고, 그 속에 화살을 던져 넣은 후 그 합개로 승부가 나는 남녀놀이	자기조절
4	공기놀이	공기를 사용하여 노는 대한민국의	정직

		민속놀이.	
5	딱지치기	신문지나 종이를 납작하게 사각형으로 접어 '딱지' 한 장을 만든 다음 땅바닥에 놓고 다른 딱지로 쳐서 뒤집으면 이기는 전통놀이	절약, 배려
6	웃놀이	개의 웃가락을 던지고 그 결과에 따라 말[馬]을 사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민속놀이	인내, 감사
7	줄넘기	끈을 돌려 그 위를 뛰어 넘는 운동의 한 종류	질서, 또래관계
8	같은모양찾기	같은 모양의 퍼즐을 먼저 찾는 놀이	관찰
9	어미새끼놀이	부모와 자녀가 한 팀이 되어 하는 다양한 놀이활동	협력
10	달팽이	숫자와 색깔을 차례대로 늘어놓아 원형으로 만들어 밟고 지나가는 놀이	예술
11	돼지씨름	씨름이나 팔씨름처럼 상대방을 잡고 하는 씨름이 아니라 쪼그려 앉아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리는 놀이	경쟁
12	대문놀이	두 사람의 문지기가 양 손을 잡아올려 문을 만들고 그 문 밑으로	순종

		다른 사람들이 빠져 나가며 노는 어린이놀이.	
13	여우야, 여우야	술래잡기에서 변형한 놀이, 질문 후 대답에 따라 행동하는 놀이	협력
14	실뜨기	주로 소녀들이 실을 손가락에 걸쳐서 여러 모양을 만들어 풀어내면서 즐기는 놀이	창의성
15	산가지놀이	산가지(쌈을 할 때 사용하는 짧은 나뭇가지)로 여러 문제를 내고 이를 계산하고 푸는 민속놀이.	창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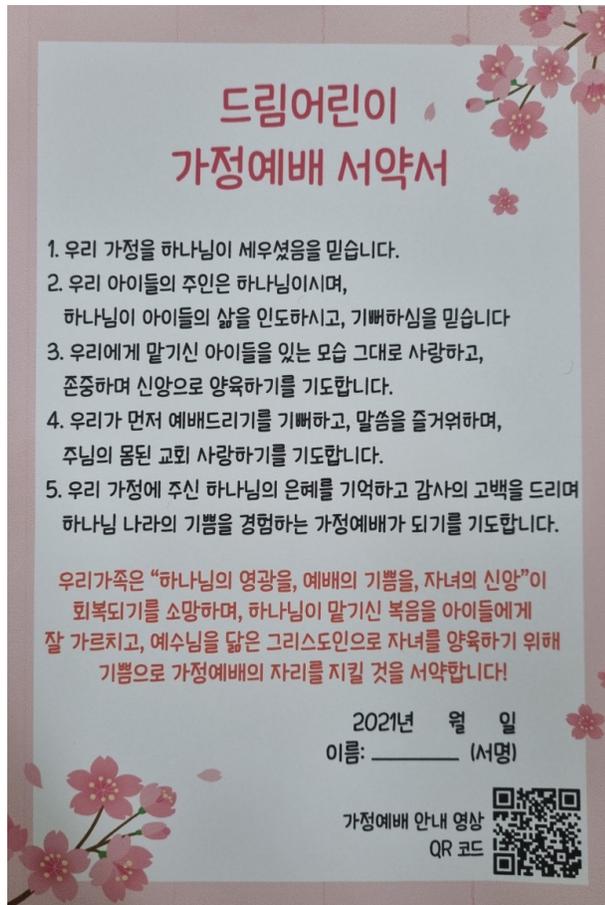
D. 가정예배

가정예배는 가정신앙교육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부모의 대부분,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실제로는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정예배가 지속적으로 세워나가고 실천하는 것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양육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방법을 잘 모르거나 첫 시작할 때 도움을 필요로하는 부모가 많이 있다. 따라서 드림어린이 부서에서는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도움을 주고 있다.

도움의 첫 번째는 결단의 시간을 부모님께 마련해주는 것이다. 가정예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키트를 받기 위해서는 가정예배 서약서에 서약을 해야 한다.

2021년 상반기동안 준비된 키트 400개가 서약 후에 배부되었다. 이러한 서약은 자녀와 함께 하는 자리에서 부모님이 하기 때문에 서약의 내용을 무겁게 느끼게 된다.

<그림> 드림어린이 가정예배 서약서



서약을 하고 난 다음 가정예배에 도움이 되는 키트를 받을 수 있다. 키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가정예배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와 LED초, 나무십자가, 장소를 구별할 수 있는 흰색 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드림어린이 가정예배 키트



가정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상의 장소를 거룩함이 있는 예배의 장소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정예배 키트의 도움은 거기에 있다. 밥을 먹는 장소, 다과를 나누는 장소가 흰 천을 깔고 십자가와 초를 세움으로써 특별한 공간, 예배의 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종교적 기구라는 매개를 통해서 가정예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정예배의 공식적으로 정해진 형식이 없다. 각 가정에 환경과 가정 내의 신앙과 신학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도가 처음 가정예배를 시작하는 가정에는 자유로움이 아니라 막막함이 된다. 따라서 드림어린이 부서는 가장 효율적이며 부모와 자녀가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가정예배지(총회 공과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공과활동 중 가정예배 부분



가정예배

우리 가족의 예배공간을 만들어요!

- ① 가족과 함께 모일 공간을 정해요.
- ② 성경이나 십자가, 말씀책자, 가정예배만을 위한 식탁보 등을 활용해, 일상 공간을 거룩한 예배공간으로 만들어요!
- ③ 진심한 찬양을 틀어 예배공간을 채워요.

예배순서

예배의 부름 _____ 다 함께
우리 가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지니라. 아멘.

기도 _____ 다 함께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가정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_____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1절) _____ 다 함께

말씀읽기 _____ 누가복음 1: 30-31 _____ 다 함께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선경 이야기 듣기 _____ 다 함께

감동 나누기 _____ 다 함께
Q. 말씀을 듣고,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나요?
Q.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나요?

마음 모아 기도 _____ 다 함께
(조)부모 : 하나님, 우리 ㅇㅇ(이)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린이 :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하심을 받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다 함께 :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_____ 다 함께

성경 이야기

갈릴리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 이곳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하신단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매우 놀란 마리아가 말했어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걸요?"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할 경우 큰 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리아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제자를 찾고 계세요. 걱정, 고민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한 tip

우리집에 오신 예수님(2) - "기다림의 초를 밝혀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대림절 동안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초를 하나씩 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초를 밝혀면 성탄의 의미가 더욱 뜻깊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초를 준비하고 또 어디에 두면 줄을 지를 정해, 초를 켜면서 대림절을 맞이해 보세요. 그리고 가정예배 시간이나 주일 저녁 초를 잠시 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세요. 안전을 위해 전기나 건전지로 켤 수 있는 초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는 소망의 초를 밝힙니다. 둘째 주는 평화, 셋째 주는 사랑, 그리고 성탄절이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는 기쁨의 초를 밝힙니다.

<기도문>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2주-평화, 3주-사랑, 4주-기쁨)입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이들이 주일 참여하고 있는 공과는 총 4쪽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 한 페이지는 가정예배가 나와 있다. 그 주 예배시간 안의 말씀과 공과활동 그리고

가정예배가 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누기에 편하게 되어있어 깊이 있는 나눔이 가능하다.

가정예배 전 준비할 것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는데, 첫째 가족과 함께 모일 공간을 정할 것, 둘째 성경이나 십자가, 말씀책자, 가정예배만을 위한 식탁보 등을 활용해 일상의 공간을 거룩한 예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잔한 찬양을 틀어 예배 공간을 채우는 것이다.

<그림> 유튜브를 통해 제공된 드림어린이 가정예배 교육영상



가정예배지 순서는 예배의 부름, 기도, 찬양, 말씀읽기, 성경이야기듣기, 감동나누기, 마음모아 기도, 주기도 순으로 되어 있다. 그 중 찬양은 가정 내에서 반주를 하는 것이 힘들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드림어린이 부서에서는 찬양팀을 통해 자체적으로 유튜브에 가정예배에 쓰일

곡들을 영상과 반주 모두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부모님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총회의 공과 안에 포함된 가정예배지를 활용하여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림> 유튜브에 제공하고 있는 드림어린이 찬양곡



성경이야기에 관하여는 총회에서 QR코드로 접속하는 경우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부모의 신앙적 소양이 다채롭기에 가정에 따라서는 자녀의 신앙연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부모님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제공된 QR코드를 통해 성경이야기를 자녀와 함께 볼 수 있다.

가정예배는 제공되는 자료와 함께 순서지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원칙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에 있어서는 신형섭 교수의 저서의 도움을 받았다.

가정예배 매뉴얼 : 우리가정에 드디어 가정예배를 세우다.

1. 가정예배는 본질적으로 예배이다.
2. 예배의 두 기둥은 은혜와 감사이다.
3. 가정예배는 숙제가 아닌 즐거운 책임이자 축복이다.
4. 말씀, 기도, 찬양은 가정예배의 필수요소이다.
5. 가정예배는 모든 가족원들이 참여적이 되도록 세밀히 준비하고 드러져야 한다.
6. 가정예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한다.
7. 가정예배는 가정 안의 구체적인 사건들과 함께 더불어 드러질 때 더욱 풍성해진다. ³³

가정예배는 본질적으로 예배이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과 공간을 충실히 이행해야 어린이들에게 예배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세울 수 있다. 부모는 모든 가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 드러야 하며, 편의에 따라 쉽게 시간대를 옮기거나 취소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가정예배에는 모든 예배가 그렇듯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고 은혜로 인식하는 것처럼, 각 가정은 그 가정의 역사 안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러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건을 인식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더욱 풍성해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감당해야 할 학교의 숙제와는 다르게 즐거운 책임이자 축복으로 인식해야 한다.

³³신협섭, 『예배 갱신의 사각지대, 교회학교 예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원, 2014), 130쪽.

제 VI 장

한소망교회의 드림어린이 가정신앙교육 분석과 평가

설문 목표

본 설문은 다음의 목표를 위해서 총 네 개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었다.

첫 번째 섹션은 설문자에 대한 가정 생활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의 형제 유무, 코로나 이후의 가정별 대화시간 등을 파악하여 언택트 시대 변화된 일상을 부분적으로 조사한다.

두 번째 섹션은,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에 대한 부모님의 인식을 조사한다. 언택트 시기 예배의 참여 정도와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에 대한 성향과 인식을 조사한다.

세 번째 섹션은, 가정 내에 가정신앙교육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정예배 유무뿐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의 인테리어가 있는 지 또는 기도 등의 신앙생활을 하는 지 조사한다.

마지막 네 번째 섹션은, 설문 응답자가 드림어린이 부서에 바라는 교육의 내용과 함께 어린이의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을 조사하여 추후 가정신앙교육에 활용할 플랫폼을 조사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설문 개요

본 설문은 한소망교회 교인으로 드림어린이 부서에 자녀를 둔 부모님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Google Forms³⁴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지로 작성되었고, SNS(카카오톡)를 통해 설문 대상에게 설문지 링크를 전달하였다. 응답자의 익명을 보장하여 자유롭게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대한 전체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설문 개요

설문 제목	드림어린이 부서의 가정의 예배와 가정예배 인식조사
설문 대상	드림어린이 부서에 자녀를 둔 보호자(부모)
설문 기간	2022년 2월 25일 ~ 26일
총 응답수(명)	137명
총 질문 수	25문항
설문 방법	온라인 설문지(Google Forms)

설문 결과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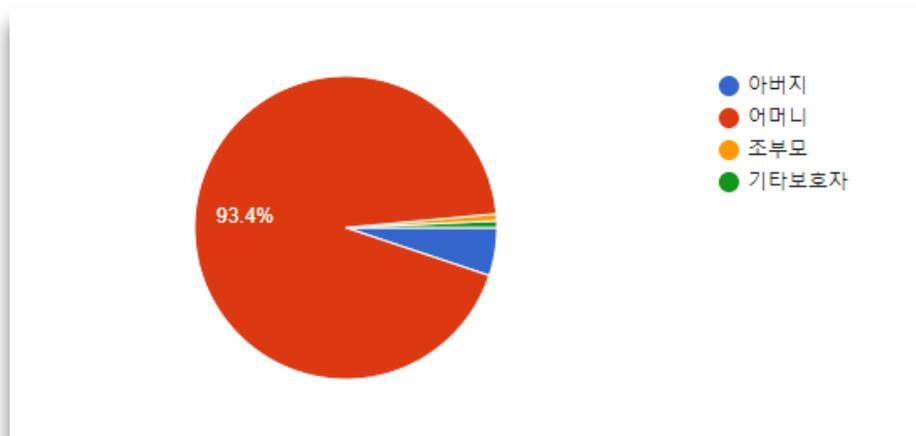
설문에 응답한 137명의 보호자들 중에 128명이 어머니일 정도로 압도적으로

³⁴ 구글 설문지(Google Forms, 구글 폼)는 웹 기반 구글 문서 편집기 제품군의 일부로서 포함된, 구글이 제공하는 설문 관리 소프트웨어이다. 구글 설문지는 웹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앱을 통해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들과 실시간으로 협업하면서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구글_설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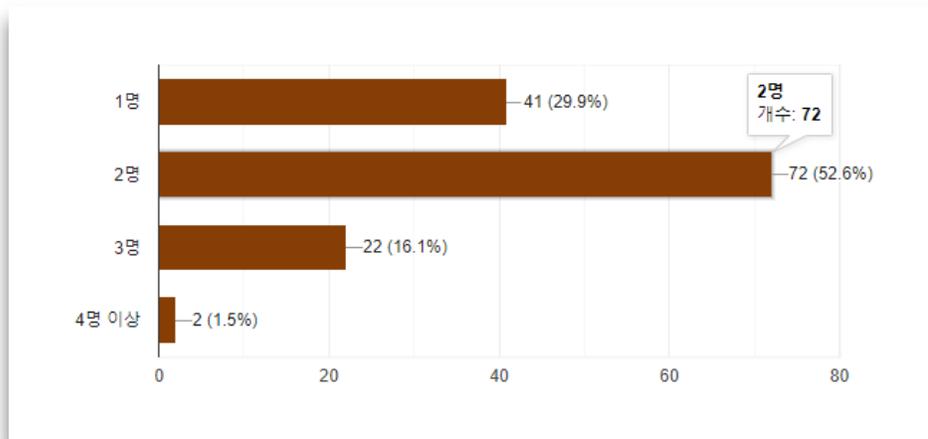
어머니의 비율(93.4%)이 높았다. 아버지는 7명(5.1%), 조부모님 1명, 기타 보호자 1명이었다. 교회와의 연락을 담당하고 교회의 교사와 소통하는 보호자 대부분 어머니라는 것은 가정신앙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현재 크다는 것에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앙적 가정을 위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가정을 위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가족부양을 위한 경제적 활동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부모의 신앙적 역할은 자녀에게 잘못된 가장의 역할-경제적인 의무만 지닌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림> 설문에 참여하고 있는 보호자 유형 조사



응답한 137명의 자녀의 숫자를 조사하였을 때, 외동으로 응답한 보호자가 41명, 2명으로 응답한 보호자가 72명으로 자녀의 숫자로는 144명(2명*72명)이 된다. 3명으로 응답한 보호자는 22명으로 자녀의 숫자는 66명이 된다. 4명 이상도 2명으로 최소 8명이 됨으로 총 어린이 숫자는 259명의 어린이의 가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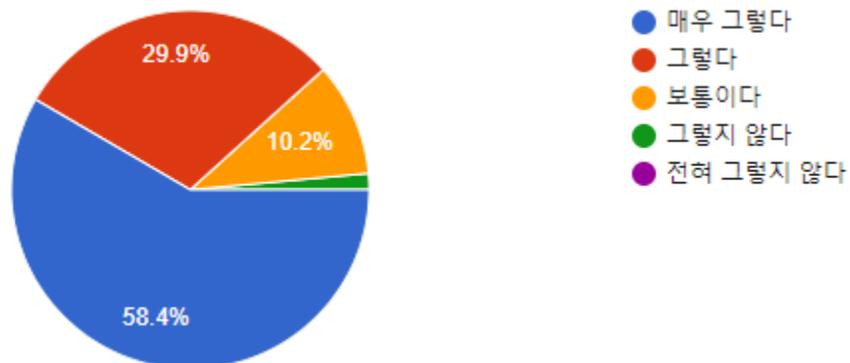
<그림> 어린이 형제, 자매는 몇 명



팬데믹 이후에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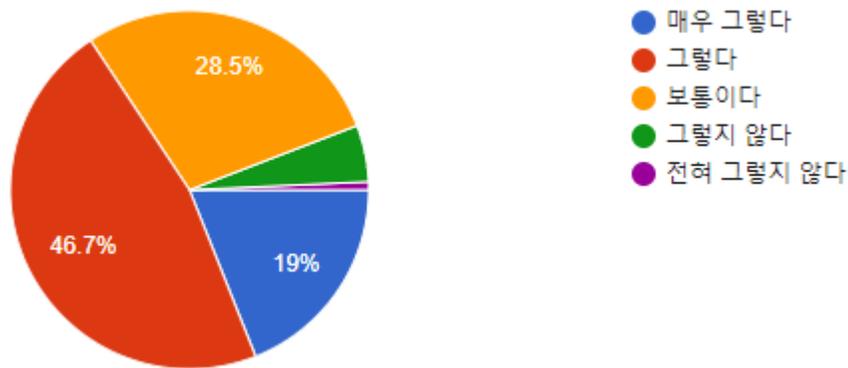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정에서 자녀 돌봄의 시간이 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58.4%)와 그렇다(29.9%)로 응답한 비율이 88.3%로 절대 다수의 가정이 코로나 이후 대화의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한 가정은 2가정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정에서 자녀 돌봄의 시간에 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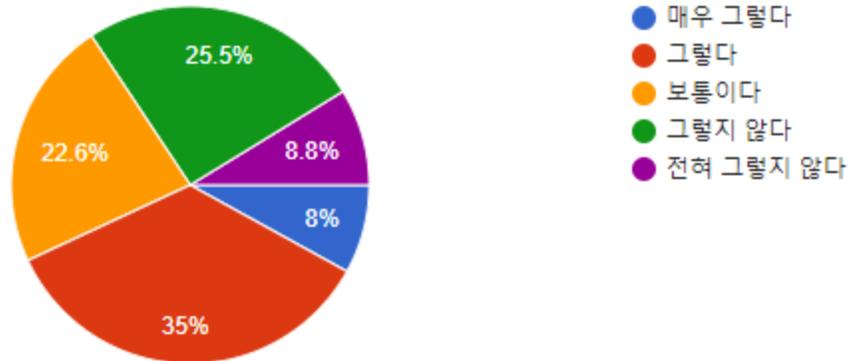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정에서 자녀와 대화의 시간이 늘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46.7%)과 그렇다(28.5%)로 응답한 비율이 75.2%로 매우 높은 비율로 자녀와 대화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네 가정 중에 세 가정은 대화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위의 질문 자녀 돌봄의 시간과 자녀 대화의 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자녀 돌봄의 시간은 늘었지만, 대화는 늘지 않은 가정도 있다는 것이다.

<그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정에서 자녀 대화의 시간에 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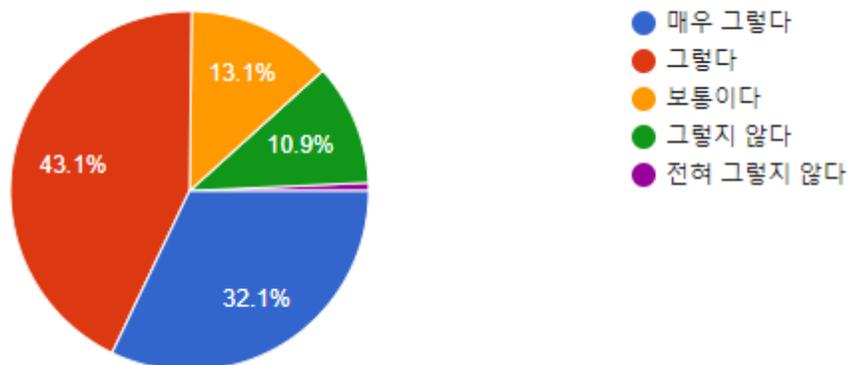
돌봄의 시간과 대화의 시간이 증가시간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은 다음의 설문과 응답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자녀와 대화 중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8%)와 그렇다(35%)로 43%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화의 시간이 늘었지만, 그 시간만큼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이야기를 자녀와 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낀 부모가 많은 것이다.

<그림> 자녀와 대화 중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유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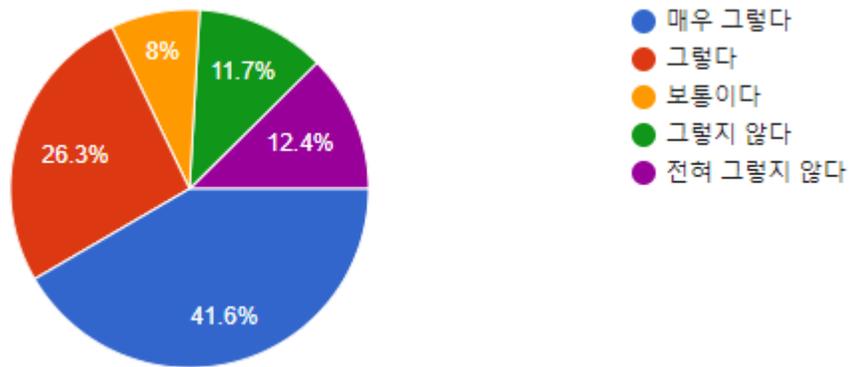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녀의 미디어 또는 게임의 사용시간이 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32.1%)와 그렇다(43.1%)로 증가하였다는 비율이 75.2%로 네 가정 중에 세 가정이 미디어 사용량이 늘었다고 답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터넷,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늘었고 이러한 문제는 부모님과의 마찰을 일으킨다.

<그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녀의 미디어 또는 게임의 사용시간이 늘었는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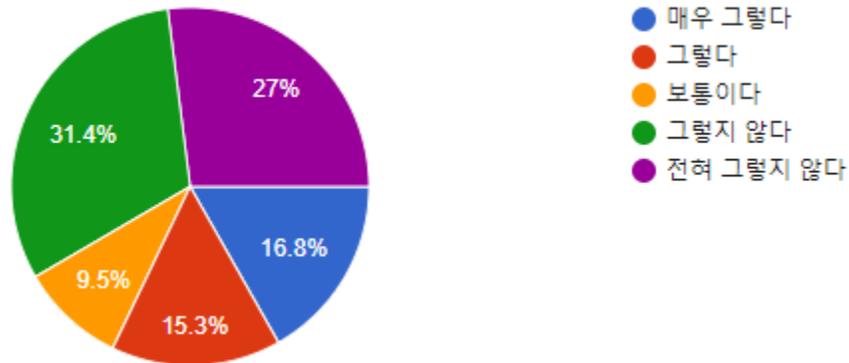
현재 한소망교회 드림어린이 부서에 주일, 현장출석 여부를 묻자 41.6%의 부모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26.3%의 부모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현장을 주로 출석하는 어린이의 비율이 67.9%로 전체 어린이 셋 중에 두 명은 현장출석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매주 현장 출석하는 어린이 가정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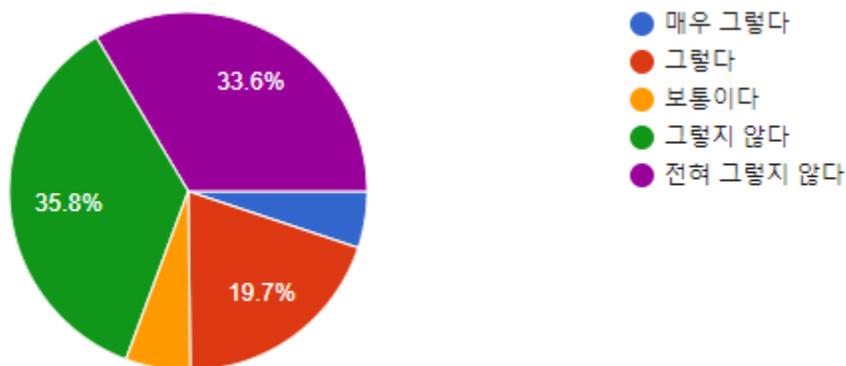
이에 반하여 매주 온라인 예배에 출석하는 어린이를 조사하였을 때, 매우 그렇다(16.8%)와 그렇다(15.3%)로 32.1%의 어린이가 온라인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매주 온라인 출석하는 어린이 가정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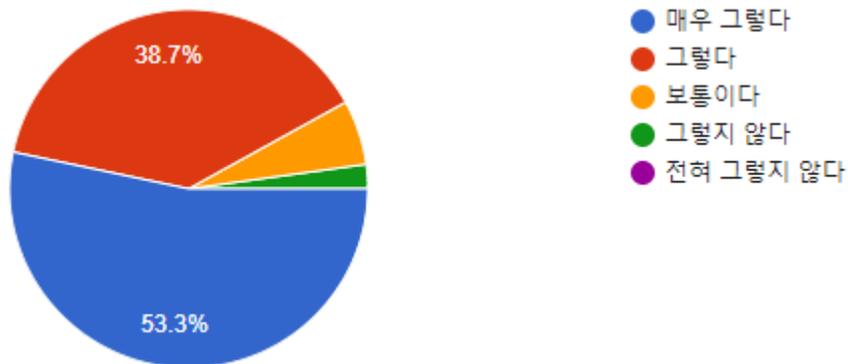
가정의 환경에 따라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는지에 대한 것을 조사하였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33.6%)와 그렇지 않다(35.8%)로 69.4%의 많은 가정들이 병행하기보다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에 각기 참여하고 있었다. 즉 현장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방역이 허락하는 한 현장예배를 고수하고 있으며,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코로나의 위기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온라인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림>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 병행하는 가정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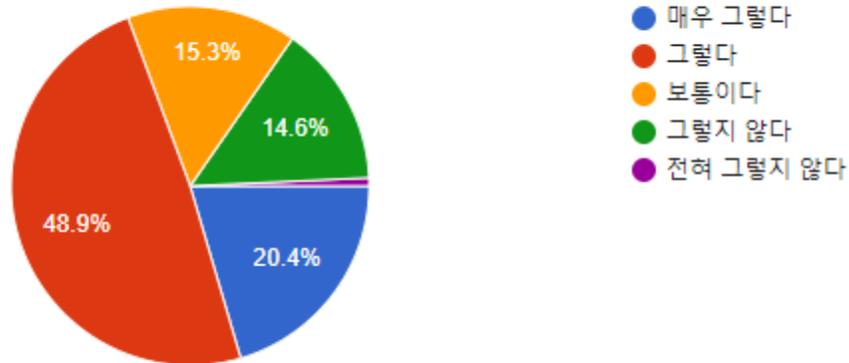
코로나19의 위기 앞에 많은 가정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의식조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하고, 출석을 해야 하는 가정이 절대 다수를 이루었다. 매우 그렇다(53.3%)와 그렇다(38.7%)로 92%가 주일 성수를 당연히 하였다.

<그림> 어린이는 주일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출석해야 하는 의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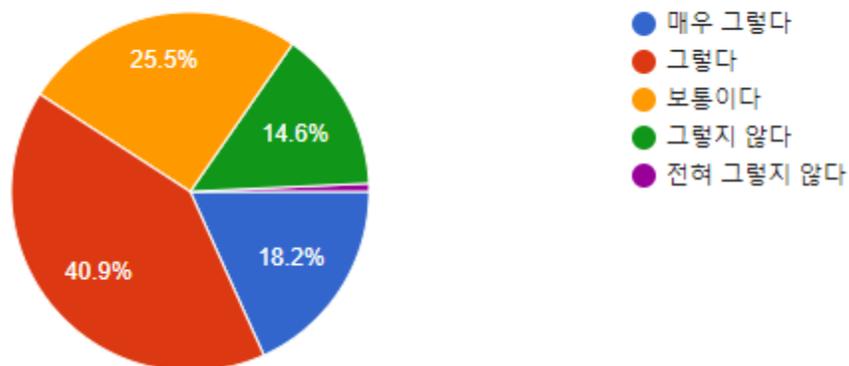
그러나 주일성수를 당연히 함에도 그 것이 한소망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동일시 되지는 않았다. 본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 지 의식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20.4%)와 그렇다(48.9%)로 매우 그렇다는 비율도 줄었으며 합 비율도 22.7%가 더 적게 나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교회 중심주의보다는 주일성수의 가치에 더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어린이는 주일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본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 의식 조사



현장의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일하게 여겨도 되는 예배인가?라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59.1%로 높은 비율이지만,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40.1%나 나와 온라인예배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을 표하는 부모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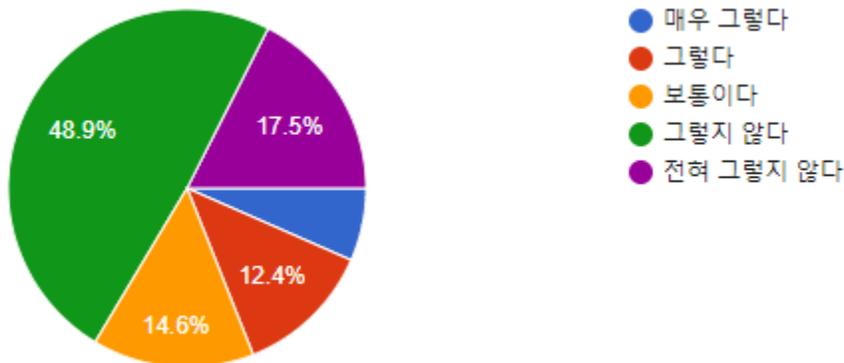
<그림> 실시간 온라인 예배와 현장예배와의 가치비교 의식 조사



가정예배 유무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그렇지 않다(48.9%) 전혀 그렇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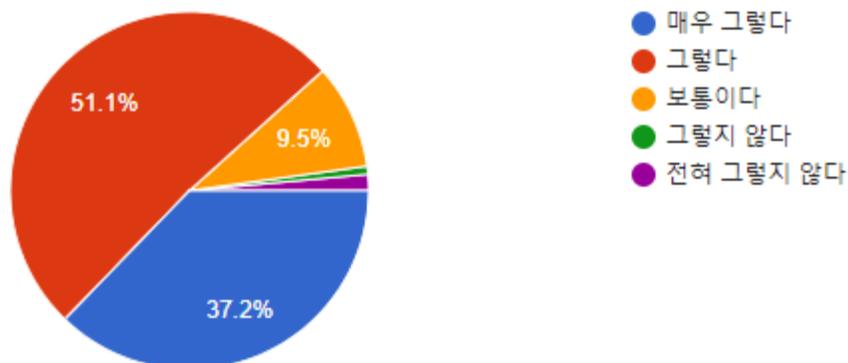
않다(17.5%)로 많은 가정이 가정예배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일예배에 대한 인식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님이 신앙에 대한 교육을 교회에게 완전히 일임하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매주 가정예배 실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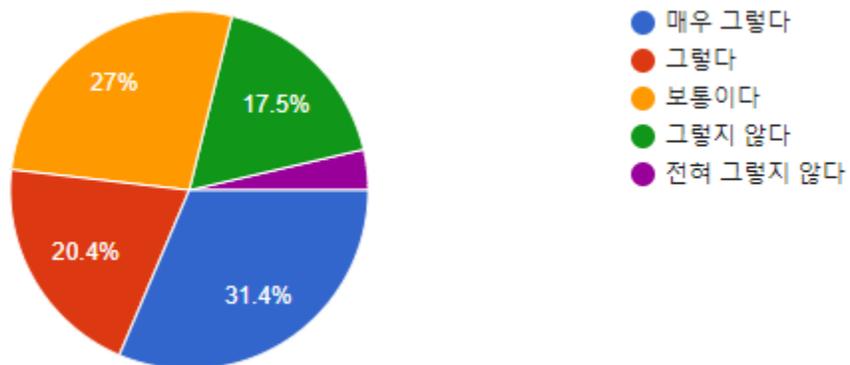
그러나 가정예배를 현재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필요성을 느끼는 가정은 많았다. 매우 그렇다(37.2%) 그렇다(51.1%)로 절대 다수의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현재 가정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가정예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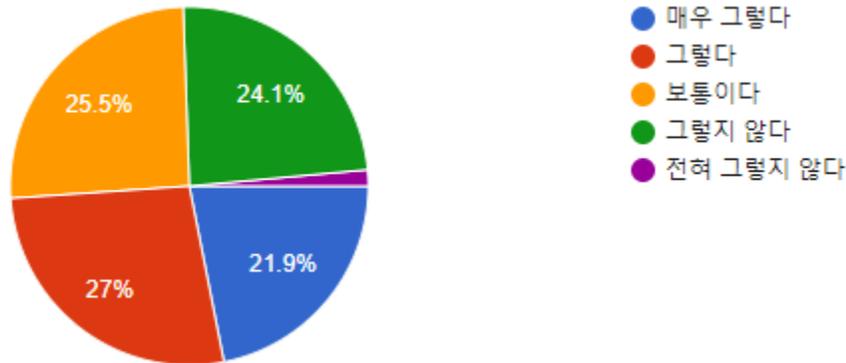


직접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가정신앙교육을 진행하는 가정이 있다. 식사기도를 드리는지 조사하였을 때 긍정적으로 답한 가정이 51.8%로 절반을 넘겼으며 가정이 함께 소리내어 식사기도하거나 잠자기 전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비율도 48.9%가 긍정적으로 답을 하였다. 식사기도는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이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행위이다. 잠자기 전 자녀축복기도 또한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습관들은 부분적 가정예배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가정예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그림> ‘현재 매 식사마다 기도하고 식사에 시작한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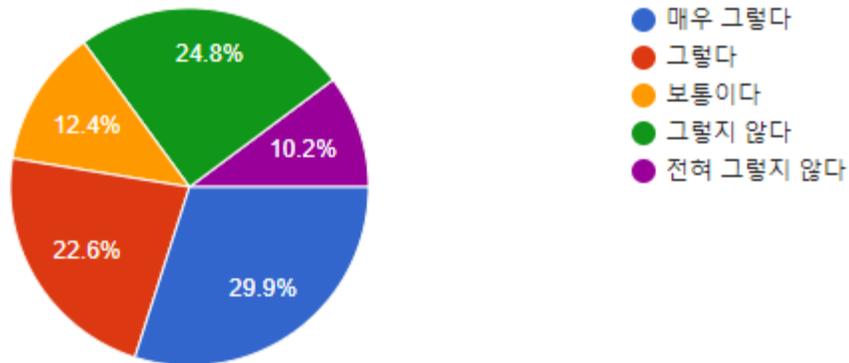
<그림> ‘현재 소리내어 식사기도를 하거나 자기 전 어린이들에게 기도를 해준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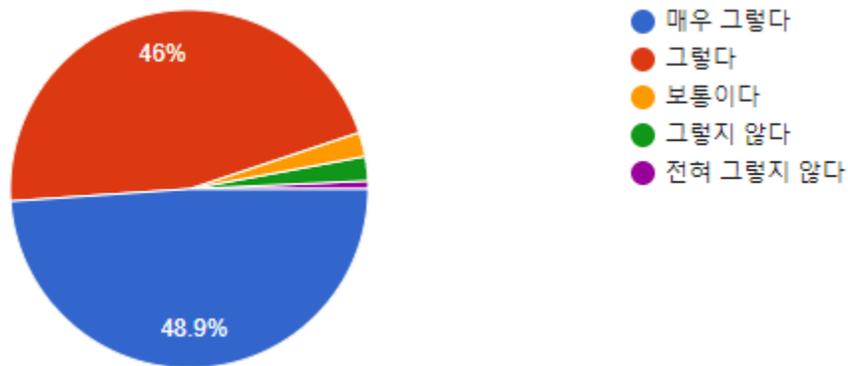
또한 ‘설, 추석 등과 같은 명절이나 조부모님 등의 기일에 추도예배를 드리는 지 조사하였을 때, 52.5%의 절반 이상의 가정이 드리고 긍정적으로 답을 하였다. 매일 또는 매주 1회의 정기적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도, 이미 넓은 의미의 가정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정 내에 십자가, 말씀액자 등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도구가 있다’ 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48.9)와 그렇다(46%)로 가정 내에서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도구를 가진 가정이 94.9%로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간접적으로 기독교를 표현하고 교육하는 도구를 이토록 높은 비율로 소유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림> ‘설, 추석 등과 같은 명절이나 조부모님 등의 기일에 예배를 드린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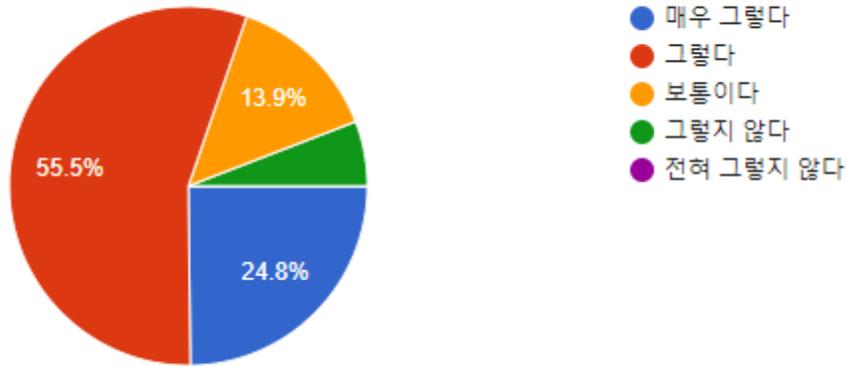


<그림> ‘가정 내에 십자가, 말씀책자 등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도구가 있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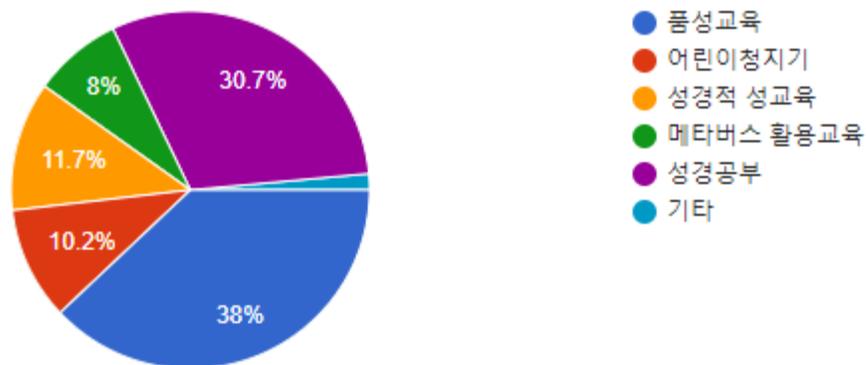
또한 자녀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온 날, 당일 예배에 어떠했냐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답한 부모가 80.3%로 높은 비율이 나왔다. 이는 많은 학부모가 자녀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주제의 말씀을 드렸는지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교적인 관심을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림>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온 날, 당일 예배에 어떠했냐고 묻는다’ 결과



부모가 원하는 ‘드림어린이 부서에서 제공되기를 원하는 교육’에 대하여 조사하였을 때, 품성교육(38%)과 성경공부(30.7%)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성경적 성교육과 어린이칭지기교육(재정교육) 순으로 나왔다. 보기로 제공된 교육의 종류 중에서는 메타버스 활용교육(8%)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신앙교육은 품성과 성경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드림어린이부서에서 제공되기를 원하는 교육은’ 결과



제 VI 장

결론

요약과 평가

인류는 코로나 19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방역을 위한 생활습관이 새롭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각 가정들로 하여금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를 불러일으켰고, 가족구성원 간의 대화의 양도 많아졌다. 산업화를 맞이하며 분산된 가정 안의 많은 기능들, 특별히 종교교육의 기능이 다시금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기독교적 부모로 준비가 되었는가에 따라 이것은 위기가 될 것인지 기회가 될 것인가 달려있다.

기독교적 부모로서의 준비의 첫 번째는 역사를 보고 배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가정신앙교육을 살펴보았다. 모든 시대에서 가정은 신앙교육의 주체이며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았다. 구약성경에서 가정은 사회에서 살아갈 방법을 배우는 교육공동체였으며, 신앙을 전수하는 신앙공동체이기도 하였다. 각 가정은 기독교적 신앙 인격 형성에 중요한 교육의 역할을 감당하는 전진기지였다. 모세를 통한 쉼마의 말씀은 가정 안에 가장 기본적인 의무-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를 인식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것은 굳건한 국방력이나 예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각 가정이 어떻게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흘러갔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년기 때에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을 놀랍게 하였던 것은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어린이 예수의 모습이였다. 공생애 시절 예수님께서서는 위로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씀하셨으며, 아래로는 어린이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는 천국에 대한 자격을 말씀하셨다. 가정을 말하는 οἶκος(오이코스)는 가정을 뜻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처소’의 의미도 있다. 하나님 앞의 가정은 혈육으로 된 공동체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의 공동체도 있는 것이다. 종교개혁 시기 다시 한번 이러한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사람이 루터이다. 루터의 기독교교육 관점의 특징은 교육이 교회와 신학교에서 확대되어 사회와 가정에서 함께 이루어야 함을 강조했다. 루터에게 있어서 가정은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장소일뿐 아니라, 하나님과 처음 만나게 되는 최초의 교회이자 신앙학교가 되는 것이다. 존 칼빈 역시 가정과 교회의 유기적이고 영적인 연계성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묶여진 일종의 언약공동체로서 정의하였다. 구약과 신약성경 그리고 종교개혁시기에 이르기까지 가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장소로 강조되었다.

기독교적 부모로서의 준비는 가정신앙교육을 할 때 무엇을 추구 해야 하는지 잘 유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장에서는 언택트 시대의 부모와 자녀에게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시간들이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동시에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부모-자녀,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폭증한 여러 증거들이 나왔다. 비대면의 시간의 증가는 가정폭력, 갈등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가정 안의 면대면 시간을 증가시키고 잘 준비된 가정은 부모와 자녀 세대의 화목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또한 가정의 신앙교육을 시작할 좋은 시점일 것이다.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할 때 유념해야 할 가치 2가지를 언급했는데 바로 공유성과 변형성이다. 언택트 사회의 가정신앙교육은 일방적 구조가 아닌 가족구성원이 함께 이 코로나 위기를 경험하고 서로

배워나간다는 점에서 가르침이 아닌 공유의 개념이다. 서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인지하고 서로 함께하는 공유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다. 신앙의 영역은 가르침과 배움, 경험 그리고 공유를 통해 성장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동시에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른 변형의 부분이기도 하다. 가정신앙교육은 이러한 변형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성령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과 그 구성원은 “성령을 통한 창조적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다.

4장에서는 한소망교회의 다음세대 교육부서에 어떻게 가정신앙교육을 두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해피영유아유치부서의 키즈쿡, 말씀놀이터 등을 살펴보면 부모님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아이들과 함께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웠다. 드림어린이부서의 ABC성경캠프, 공감스쿨, 온가족집콕놀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같이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장하며 놀이하며 예배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며,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도 보았다.

결론과 제언

언택트 시기의 가정신앙교육을 제시한 본 연구를 통해서 각 가정에 적극적으로 제언하는 바는 각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실시할 때 공유와 변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각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앙의 가정을 위한 노력을 늘 유지해야 한다.

가정 안에서의 삶은 의식주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이기에 그 안의 삶은 대부분 비의도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고 일상의 삶을 나눈다. 가정신앙교육은 의도적인 계획과 노력임으로 각 가정에게만 변화를 요구하였을 때 쉽게 이를 수

없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가정예배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부모의 신앙교육을 돕는 프로그램을 계속 기획하고 발전시켜 이를 도와야 한다.

한소망교회의 다음세대 부서의 여러 가정신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살펴본 것은 이를 위한 예시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교육프로그램들은 부모와 형제, 자녀로 이루어진 보편적인 가정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규모가 있는 교회여서 가능한 부분도 있었다. 여러 형태의 모습의 가정과 교회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가정신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본고에서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코로나 19 아래의 상황은 여러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본 논문은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현대 가정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언택트 시대에 가족 간의 화목의 기회를 바라보며 가정을 하나되게 하고, 가정신앙교육을 돕는 연령별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언택트 시기에 가정의 신앙교육이 회복된다면 다른 기독교교육의 장들도 신앙교육이 회복될 것이다. 가정, 교회,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앞에 더욱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외국어서적

William Barclay, Educational Ideals, in the Ancient Worl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9),

번역서적

Laird Harris, Gleason Archer, Bruce Waltke, *구약 원어 신학사전* (서울: 요단 출판사, 1986), 번역위원회 옮김

Gerhard Kittel, Gerhard Friedrich, *깃텔 단권 신약원어 신학사전*, (서울: 요단 출판사, 1986),

Thomas H. Groome, *기독교적 종교교육*. 서울: 교문사, 1983, 이기문 옮김

한국어서적

신협섭, *예배 갱신의 사각지대, 교회학교 예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원, 2014)

김미경, *기독교 가정신앙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1999)

김도일, *교육인가 신앙공동체인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오인탁 은준관 정우섭 고용수 김재은,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4)

박종석,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6)

양금희,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기독교교육연구원, 2006)

유해무 외 7인 공저, *가정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생명의 양식,2018)

잡지, 신문기사

차성웅. “국내 아동,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하루 평균 ‘13분’ ” .

『한국NGO신문』 .2018년4월30일

정재홍. “[view] 코로나가 '라이프스타일·의료·교육·국제관계' 다

바꾼다” . 『중앙일보』 .2020년3월31일.

임재우, “청소년 가족문제 온라인상담, 지난해보다 75.8% 늘어” 『한겨레신문』 .

2020년 12월17일.

이미경, “WHO 코로나 대유행에 정신보건·가정폭력 위기 맞았다” , 『한국경제』 ,

2020년 8월 19일

편슬기. 청소년실태, “코로나로 가족관계 좋아졌지만” . 『팝콘뉴스』 . 2021년

4월 21일

논문

신경민. “21세기 언택트 시대의 기독교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공유성·변형성·통전성에 기초한 STW가정교육모델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

박사학위논문.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21년 8월

부록1. 키즈쿡 식기구 및 재료 구입표

기본 물품 : 개수대, 인덕션, 후라이팬, 미니오븐, 냄비, 도마, 쟁반, 이쁜 접시, 주걱, 빵칼, 포크, 요리사모자, 선생님 앞치마, 물티슈, 다양한 일회용 도시락.

내용	준비물	
돼지떡바 만들기	도구	도마, 접시, 막대(두발포크), 포장지, 리본, 그릇, 초콜릿 바르는 도구
	재료	백설기, 찰떡, 초콜릿, 쿠키 크런치, 두발 포크
둘둘김밥과 궁중떡볶이 만들기	도구	도마, 칼, 쟁반(어린이접시), 포장상자
	재료	<둘둘김밥 재료> 밥 80g, 김 1.5g, 계란 30g, 햄15g, 당근15g, 시금치, 우엉10g, 참기름, 소금 약간 <궁중떡볶이 재료> 떡볶이 떡 100g, 오징어 50g, 갈아놓은 쇠고기 30g, 간장 1g, 물, 참기름, 통깨
쿠키만들기	도구	도마, 모양틀, 오븐 4개, 접시, 포장지
	재료	버터 75g, 설탕 50g, 바닐라 엑스트랙트 1/4ts, 박력분 150g, 베이킹파우더 1/4ts, 우유 30ml, 계란, 아몬드가루, 코코아가루, 초콜릿
얼굴컵케익 만들기	도구	도마, 접시, 컵, 오븐 4개
	재료	빵 시트, 바닐라 엑스트랙트 1/4ts, 설탕 50g, 버터 75g, 베이킹 파우더, 박력분 75g, 우유, 후르츠 카테일, 생크림, 초콜릿 가루, 쿠키 크런치, 펜 초콜릿

토마토 스파게티 만들기	도구	도마, 칼, 쟁반(어린이접시), 포장상자, 그릇
	재료	스파게티 면, 베이컨 1줄 반, 마늘3쪽, 올리브유, 마늘, 양파, 토마토소스, 설탕, 파슬리, 그라나치즈 가루, 소금, 후춧가루
고구마 타르트 만들기	도구	도마, 접시, 그릇, 숟가락, 포장상자
	재료	타르트지, 삶은 고구마 250g, 생크림, 설탕20g, 계란 1개, 꿀 30g, 견과류

부록2. 드림어린이 가정신앙교육과 예배 관련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어린이 이사회 목사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보다 나은 드림어린이 부서를 위해서 예배에 대한 인식과, 현재 가정의 상황을 파악하고, 부모님의 목회자와 교사에게 요청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박사논문인 “다음세대를 위한 언택트 시대의 가정신앙교육 한소망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를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이기도 합니다.

정성껏 작성해주신 설문 내용은 “익명처리로 모든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지의 각 문항을 솔직하게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문항의 성함과 연락처는 오직 아이들 선물 추첨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본 설문의 모든 정보는 소기의 목적 외에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내용>

* 첫 번째 영역은 설문자에 대한 가정 생활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형제유무, 가정별 대화시간 등을 파악하여 코로나 이후 상황을

파악합니다.

1. 설문에 참여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1) 아버지 (2) 어머니 (3) 조부모 (4) 기타 보호자

2. 자녀의 형제, 자매는 모두 몇 명입니까?

(1) 1명 (2) 2명 (3) 3명 (4) 4명 이상

3.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정에서 자녀 돌봄의 시간이 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4.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정에서 자녀와 대화의 시간이 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5. 자녀와 대화 중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6.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녀의 미디어 또는 게임의 사용시간이 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 두 번째 영역은 주일예배에 대한 부모님의 인식을 조사한다. 언택트 시기, 예배의 참여 정도와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에 대한 성향과 인식을 조사한다.

7. 현재 우리 가정의 어린이는 매주 현장으로 출석하고 있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8. 현재 우리 가정의 어린이는 매주 온라인예배로 출석하고 있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9. 현재 우리 가정의 어린이는 현장과 온라인예배를 번갈아가며 출석하고 있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10. 어린이는 주일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드려야 한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11. 어린이는 주일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본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12. 실시간 온라인예배도 현장예배와 같은 예배이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 세 번째 영역은 가정 내에서 정규 예배 외에 가정예배를 드리는지, 또는 기독교적
가치관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13. 현재 매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14. 매주 또는 자주 가정예배를 드리는 경우 교회에서 제공되는 공과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15. 현재 매 식사마다 기도하고 식사에 참여한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16. 현재 소리내어 식사기도를 하거나 자기 전 어린이들에게 기도를 해준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17. 설, 추석 등과 같은 명절이나 조부모님 등의 기일에 예배를 드린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18. 가정 내에 십자가, 말씀액자 등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도구가 있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19. 현재 가정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가정예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20.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온 날, 당일 예배에 어떠했냐고 묻는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 네 번째 영역은 드림어린이 부서에 바라는 교육의 내용과 함께 메타버스 등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플랫폼 조사를 진행하여 추후 가정신앙교육에 사용한다.

21. 드림어린이부서에서 제공되기를 원하는 교육은?

(1) 품성교육 (2) 어린이칭지기 (3) 성경적 성교육 (4)메타버스활용교육 (4) 성경공부 (5) 기타

22. 21번 문항 (5)기타를 선택한 경우 어떠한 교육을 원하나요?

(1)

23.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메타버스 플랫폼이 있나요?

(1) 마인크래프트 (2) 로블릭스 (3)제페토 (4) 유튜브 (5) 기타

24. (앞 문항 기타로 답한 경우) 어떠한 플랫폼이 있나요?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3 청소년교회 ‘신앙소통’ 프로그램

한소망교회 청소년교회에서 진행하는 부모님과 “신앙소통”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은 가정신앙보다는 개인의 신앙에 더욱 집중하기에 가정예배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없으나 부모님과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상호 소통을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부록으로 남긴다.

- 신앙소통

살롬, 우리 한소망 청소년교회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 우리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중고등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종교의식에 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정’이 청소년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영향이 큰 것으로 응답되었고, 아버지의 영향이 2위로 목회자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응답되었습니다.³⁵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특히 청소년의 경우 신앙 소통이 중요해진 지금, 청소년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청소년 자녀 신앙 소통 가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참고하시어 학부모님들과 청소년 자녀들 간의 신앙소통이 원활해지고,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³⁵ 목회데이터연구소 위클리 리포트 102호, 2021년 7월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153

1. 자녀의 신앙에 관심 갖기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신앙 소통은 시작됩니다. 자녀들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녀들이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신앙교육을 받는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매주 예배 영상과 포인트 설교가 한소망 청소년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데이트 됩니다. 특히 포인트 설교는 자녀들이 듣는 설교의 요약이므로 부모님들께서 시청해주시면 자녀들과의 신앙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교회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에서 ‘THE청소년교회’를 검색가능합니다. 구독과 알림설정을 하시면 업데이트 되는 청소년교회 미디어 사역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교회 인스타그램은 ‘한유철’ 혹은 ‘THE청소년교회’를 검색하시면 팔로우 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녀와 대화하기

청소년 자녀와 대화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소통의 맥락’이 유실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면서부터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바쁜 일정, 학업, 라이프 스타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줄어들면서 소통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지요. 이런 경우라면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부터 만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의 주제도 자녀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만한 주제들로 친근하게

시작해주세요. 소통의 맥락이 약한 상태에서 “너는 꿈이 뭐니”,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고싶니” 등의 질문은 자녀들에게 ‘갑자기?’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대화의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뭐했어?” 라는 질문도 좋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하루는 대체로 같거든요. 아마 90%이상 똑같다는 대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선은 부모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님의 소소한 하루이야기, 재미있었던 일, 주식 이야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유튜브를 보신다면 부모님이 보신 유튜브 이야기도 좋고,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눌 연예인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이후 차차 “요즘 어떤 유튜버 구독해?” 같이 자녀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대화를 풀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소통의 맥락들이 회복되고 대화의 시간들이 쌓였을 때가 고민이나 진학, 장래 같은 깊이 있는 주제들을 이야기해도 어색하지 않은 때입니다. 신앙 이야기도 이 시점에 소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대화는 언제나 일방이 아니라 쌍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이 대화의 내용이 되기보다 생각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부모님들께서 애써주셔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의 생각이 옳지 않고 잘못될 수 있지만,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서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들의 신앙을 주제로 대화 하실 때에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나, 이번 주 말씀 중 기억에 남는 부분이라던지, 신앙적 궁금증 같이 비교적 가벼운 주제로 소통의 맥락을 만들어주시고, 신앙적 고민과 같은 주제는 조금 더 천천히 나눠주세요.

3.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부모님의 영향이 자녀들의 신앙에 큰 영향을 준다는 통계가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다면, 자녀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부모님의 기도일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들의 진심이 담긴 기도는 큰 힘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의 기도를 자녀들이 알게 될 때는 큰 감동과 위로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들께서는 그저 하시던 대로, 마음을 담아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계속 해주시되, 자녀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모님의 기도의 모습이 자녀들의 기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4. 자녀의 예배 응원하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청소년 시기의 신앙은 청소년 시기의 예배를 통해 점차 성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자녀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자녀들의 예배를 응원해야 합니다. 강제가 아닌 격려와 응원을 통해 자녀들의 예배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는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부모님들이 먼저 본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원에는 자녀들의 상황에 대한 공감과 동시에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할 지향점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공부한 자녀에게 주일 아침 예배는 힘들고 피곤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강제 사항으로 예배에 참석을 시키기보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 있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심으로써 자녀들이 지향해야 할 예배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시되, 피곤하고 지치는 가운데에서도 자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것이 자녀들의 신앙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소망 청소년교회의 주일예배는 한소망 청소년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로, 다시보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자녀와 함께 예배하기

1~4번의 내용들로 자녀들과 소통의 맥락이 확보되고 어느정도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청소년 자녀의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조금 더 깊은 신앙 소통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 시간에 자녀들은 패밀리(목장)와 함께, 부모님들은 다른 장소에서 청소년 예배를 같이 드리시면 신앙 소통의 접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 가정에서 오늘 청소년 예배 말씀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부모님의 소감과 질문으로 깊이 있는 신앙 소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녀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부담과 거부감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가정 내에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신앙의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줄 압니다. 다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 가족의 목표로 함께 선포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바른 신앙에 대한 마음이 자녀들에게 강제가 되거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왜곡되거나 오도되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자녀와의 소통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의 경우, 찬양/찬송과 말씀나눔, 기도로 진행하시되, 청소년교회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설교나 주일 설교 본문을 함께 묵상하시거나, 가족 구성원 각자가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즉, 부모님의 주관적인 말씀 나눔보다 제3자의 말씀 나눔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주관적인 말씀 나눔이 경우에 따라서 자녀들에게는 잔소리와 동급으로 들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제3자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말씀 나눔을 추천드리며, 자녀들의 의견과 질문 모두를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신학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조금 더 자세한 가정예배 가이드를 청소년교회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가이드가 한소망 청소년교회에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신앙 소통을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사랑하는 부모님으로서, 좋은 믿음의 본과 바른 신앙의 교육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

부록 4. ABC 가족성경캠프 관련 자료(신청서, 가로 세로 배너)



어린이 가족성경캠프
Amazing Bible camp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가정

드림어린이 가족성경캠프 ABC

무엇?
텐트 안에서 시작되는 가정예배

날짜
6월 2일 오후 6시부터 ~6월 3일 오후 1시까지

장소
3층 살롱홀

내용
가정예배, 바비큐 파티, 가족 레크리에이션

어린이 가족성경캠프
Amazing Bible camp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가정

드림어린이 가족성경캠프 ABC

무엇?
텐트 안에서 시작되는 가정예배

날짜
6월 2일 오후 6시부터 ~6월 3일 오후 1시까지

장소
3층 살롱홀

내용
가정예배, 바비큐 파티, 가족 레크리에이션

어린이 가족성경캠프(ABC)는 부모와 함께 교회 안에서 1박2일 동안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유대인들이 조막집이 진행되는 동안 유폴절의 은혜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들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텐트 안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가정의 은혜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 : 너희는 대례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 23:42-43)

-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두 분 모두 참여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금요일 오후 늦게 시작하여 토요일 점심까지 진행됩니다.
- 텐트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 없는 가정은 신청하시면 따로 렌트해 드립니다.
- 어린이의 형제, 자매 가운데 드림어린이 부서가 아닌 경우에도 환영합니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회비는 8만원으로 신청서 접수 시 함께 내주세요. 텐트가 없는 가정은 추가로 3만원(텐트비)을 내셔야 합니다. 되도록 주변 가정에서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 6월 2-3일(1박2일)
장소 : 3층 살롱홀
시간 : 월 2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내용 : 교회에서의 바비큐파티, 가족 레크리에이션, 가정예배, 성경읽기 등등

어린이 가족성경캠프(ABC) 신청서

6월 2일 (금)18:00 - 6월 3일 (토)13:00				
	이름	나이	성별	표.포
아버지				
어머니				
자녀1				
자녀2				
자녀3				
텐트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아니요
텐트를 보유하지 않으신 경우 3만원(텐트비)이 부과됩니다.				
자녀 중 알리지가 있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예	아니요
알리지가 있다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나요?				

부록 5. 해피 영유아유치 말씀놀이터(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리즈-사순절) 안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말씀놀이터 시즌1

살롬, 해피영유아유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해피 영유아유치에서 사순절 기간인 3월 1주(3월6일)부터 4월 2주(4월16일)까지 6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말씀놀이터 시즌1**이 진행됩니다. **말씀놀이터영상, 말씀놀이터 활동자료, 가정예배지, 칭찬스티커판 등 다양한 신앙교육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회비 1만원) 각 반 담임선생님께서 보내드린 구글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가는 데 온 맘과 온 힘을 다해 해피영유아유치에서 돕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말씀 놀이터 시즌 1 키트〉



(3월,4월 가정 예배지)



(1주차 믿음의 역사책 만들기)



(2주차 예수님 청진기)



(3주차 예수님 옷자락 잡기 활동)



(4주차 사랑의 시계 diy)



(5주차 예수님 궁금해요
젠가 활동)



(6주차 호산나! 예수님이 오셨어요 점핑말)



(말씀놀이터 칭찬스티커)

한소망 교회 해피영유아유치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Sehee Lee

Place and Date of Birth: Pohang, South Korea, June, 8, 1983

Parent`s Names: Sanghak Lee / Hyeik Son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Daedong High School 33, Uhyeon-dong,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0, 2002
Collegi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B.A	Feb 7, 2010
Gradu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M.div	Feb 11, 2014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Sehee Lee

Name typed

March 12, 2022

Date